IT p/12



폐쇄형SNS서도 진검승부

메트로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제298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홍명보호 조직력 끌어올려라





빗속에서…배우자와 함께…막판 총력전 6·4 지방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후보들을 비롯해 당내 지도부, 선거 운동원들은 2일 부동층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쳤다.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빗속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왼쪽).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부인 최명길씨와 함께 강원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보자 선택 "스마트하게 하세요"

온라인 메트로신문 '6·4 선거 특별페이지' 오픈
클릭·터치하면 관련뉴스·프로필·토론 줄줄이…

직장인 박재홍(43) 씨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선거홍보물을 받고 입이 딱 벌어졌다. 6·4 지방선거 후보자가 많은 줄을 알았지만 선거홍보물이 웬만한 잡지를 능가할 정도로 두꺼울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도 야당도 마음에 들지 않던 참에 '아예 기권할까'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다. 하지만 박 씨는 이내 마음을 고쳐 잡았다. 클릭품·터치품을 조금만 팔면 후보자 공약 비교는 물론 자신과 정책성향이 비슷한 후보를 콕 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스마트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선거 포스터나 홍보물만으로는 쉽지 않은 공약 비교를 척척해내는데다 투표방법, 투표소 위치 등도 상세히 알려준다. 예상을 뛰어넘은 사전투표율 11.49%도 클릭·터치만으로 원하는 후보를 선택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6·4 지방선거' 특별 페이지(www.metroseoul.co.kr/news/group/election)를 오픈했다.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지역별 선거관련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후보자의 프로필도 손쉽게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이버를 클릭하면 다양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지방선거 이슈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는 '이슈 타임라인'도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다.

다음에서는 '우리동네' 코너를 통해 지역별 후보자들의 출생, 학력, 경력 등의 기본 정보와 그동안의 선거이력, 의정활동, 공약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댓글로 후보자에게 바라는 점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스마트한 후보 선택 눈길

후보자 선택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성향과 일치도가 높은 후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 중이다. 후보선택도우미 웹사이트(vote.ccej.or.kr)에 접속해 지역구를 선택한 후 정책현안 질문에 답하게 되면 자신의 성향과 가장 일치하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이니스트의 '공약 블라인드 테스트'(rainist.com)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공약을 후보자 정보 없이 보여주고 이용자가 가장 공감이 가는 공약을 선택하면 해당 후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방식이다.

◆페이스북으로 투표 참여 독려

TV 토론회를 놓쳤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공하는 '6·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애플리케이션이 유용하다. 지역별 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기초단체장의 최근 TV 토론회를 즉석에서 시청할 수 있다. 투표소와 선거일정, 투·개표 현황을 알고 싶다면 선관위의 '선거정보'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페이스북의 '투표할게요' 기능도 눈길을 끌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사실을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최악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번 선거 전체투표율이 60%대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시중 아이스크림 당분 함량 '충격'
80개 판매제품 조사…5개중 1개는 권장치 초과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1개만 먹어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1일 성인 '당 섭취' 권고량의 74% 수준에 달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4개사에서 판매하는 80개 아이스크림의 당 함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5g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그만 아이스크림 한 개(평균 중량 118㎖)를 먹으면 3g짜리 각설탕 6개 이상을 녹여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당류를 지속적으로 과잉 섭취 할 경우 비만이나 당뇨병, 각종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킬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당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롯데제과 '일품팥빙수(250㎖)'로 무려 54g에 달했다. 새로운 WHO 기준(25g)의 2배를 넘은 것이다.

2·3위는 빙그레 'NEW팥빙수(250㎖)'와 롯데푸드의 '팥빙수 파티(280㎖)'로 각각 당 함량은 48g, 44g이었다. 롯데제과 '와'(190㎖, 33g), '명가찰떡아이스'(80㎖, 32g) 역시 하루 권장치를 초과했다.

뒤이어 빙그레의 '메타콘 딸기'와 롯데푸드 '본젤라또 초코&블랙쿠키'가 각 29g, 빙그레 '찹쌀떡아이스', 해태제과 '아이리스 팥빙수'가 각 27g, 롯데제과의 '초키초키'와 '녹차마을', 빙그레의 '메타콘 허리케인 초코', 롯데푸드의 '더블콘 딸기' 등 4개 제품은 각 26g으로 역시 WHO권고치를 초과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만으로 하루 당 권고치를 뛰어 넘는 제품도 17개 (21.5%)나 됐다.

/정영일기자 prms@



덥수룩한 해수부 장관 이주영(오른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맞이 하기 위해 전남 진도군 진도체육관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푸드트럭, 대기업 위한 것 아냐"

朴 대통령 "서민 생계·일자리 창출위한 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 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 하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방통위 갈짓자 행보와 시장혼란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이동통신시장이 또다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정도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동통신 3사 영업이 모두 재개된 20일 이후 번호이동건수가 급증하며 한 때 7만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23일에는 '5·23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불법 보조금으로 45일간 영업정지를 받은 것이 전혀 타격이 없었다는 듯 재차 이뤄지는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행태에 업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있다.

한 이동사 대리점주는 "이통 3사에 대한 처벌을 하려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막상 영업정지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데 도대체 방통위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올 3월 시장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선별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과 7일간의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하고, 제재 시일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방통위는 태도를 바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6월이 되자 다시 시장조사에 착수해 최근 벌어진 불법 보조금 논란에 대해 주도 사업자를 재선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른 문제를 만드는 식의 방통위 '갈짓자 행보'에 시장은 오히려 더욱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신임 김관진(왼쪽)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겠다"

"7·8월 제외한 상시국회 추진·남북 국회 회담 노력"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문제"라며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결 사항(의결 정족수)은 재적 과반"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며 "선진화법의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고, 어떤 날은 법안소위를 하는 식으로 정착해서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가 필요하다"며 "1~12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는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2년 단위가 아니라 3개월씩 연장하면서 혁신적 변화를 이끌 방안을 만들고, 우선 8월 말까지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6월 국회부터 노력해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의원 재외공관 갈때는 사전공문 보내라"

국회의원들이 외국을 방문해 재외공관의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문을 통해 사전에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외교부가 지난 2009년 제정한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 예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최근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며 "재외공관의 의전·편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재국 대사가 공항에 나가 맞이하는 대상을 국회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한정하는 등 공항에서의 의전 제공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국조특위, 첫 날부터 '삐걱'

여야는 2일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가 야당 위원들만 현장 방문에 나선 이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과 생존·실종자 가족들과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특위 활동에 앞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이 이날 오전 출발지인 용산역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 결국 야당 위원들만 현지로 출발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지 풍랑이 거세 바지선도 다 빠져 있고, 부상 치료를 위해 일부 가족들도 빠져나간 상황이라 실종자 가족들이 '오지 마라, 다시 날 받아서 오라'고 해 다시 날을 받아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시야에서 진도 모습을 감추려는 의도적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특위가 일방적으로 결정, 운영돼 진실규명에 난항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사할린 한인1세 영주 귀국 내년에 일단락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한인 1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는 영주 귀국이 내년에 일단락된다. 영주 귀국은 지난 1990년 한·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양국 적십자사가 실무를 맡아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모두 4189명의 동포가 고국에 돌아왔다. 오는 11월께 1세 55명과 2세 45명이 입국하고, 내년에 135명이 입국한다.

"워터파크 성추행 미군 수사협조" 요청

● 외교부가 최근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 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사무국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처리 과정을 보면서 미측에 추가로 입장을 전달할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저 매입 의혹’ 이 전 대통령 무혐의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고 2일 밝혔다. 또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 경호처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함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 국고를 낭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30일간 수사했다. 당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안겨 국가에 9억 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김민준기자

‘미래 퇴직금’ 재산 분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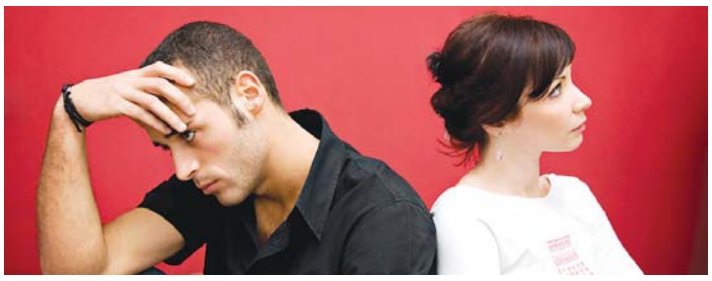
맞벌이 부부 이혼 소송…대법 19일 공개변론 판결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배우자가 앞으로 받을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래의 퇴직금’을 둘러싼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은 약 14년 동안 맞벌이 부부로 생활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해 시작됐다. 쟁점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 퇴직수당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와 그 분할 방법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나 그 과정에서 함께 부담한 채무를 나눠 각자의 몫을 정한다. 어느 한 쪽에 의해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다.

남편은 2심에서 양측이 장래에 받을 퇴직급여, 퇴직수당 등도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간토대학살 피해자 명단 공개

6천명 희생자 중 일부…10세 미만 어린이도

관동(간토)대학살 피해자 318명의 명단이 담긴 정부 공식문서가 처음 공개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일정시 과거사 명부’ 중 간토대학살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이름, 주소, 피살 당시 상황을 담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를 정리해 정보공개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진재는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 등 일본 관동지방 일대를 강타한 규모 7.9의 간토대지진을 말한다. 이 지진으로 10만500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거나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날조된 소문이 공권력에 의해 유포돼 사회불만이 재일 조선인에게 향했고, 이로 인해 재일 조선인 6000여명이 일본군과 경찰, 자경단 등에 의해 학살됐다.

이번에 공개된 간토대학살 피해자 명단은 1952년 이승만 정부가 국내 조사를 벌여 작성한 것이다. 그간 이 문서의 존재는 잊혀져 있었으나 지난해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공개된 자료에는 일본 경찰과 소방대 등 공권력이 조선인 학살에 가담했으며, 학살에는 죽창과 쇠갈쿠리 등이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살된 조선인 중에는 10세 미만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다. 나이가 확인된 최연소 피해자의 연령은 2세였다. /김민준기자

‘신혼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서울YWCA는 유한킴벌리와 함께 생명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는 ‘2014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를 개최한다.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는 결혼 1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명과 가족, 아름다운 부부관계에 대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성렬 교수의 ‘결혼의 의미, 부부에 대한 이야기’ 특강을 비롯해 부부가 직접 참여하는 소시오드라마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강사는 소시오드라마 전문가인 별자리사회심리연구소 김영한 소장과 가족상담 및 부부갈등조정 전문가인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 맡는다.



참가 신청은 11일까지이며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www.yuhan-kimberly.c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행사는 서울YWCA(중구 명동)에서 21일, 28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02-3705-6097로 연락하면 된다.



사전투표회송우편물 접수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우체국 직원들이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수한 사전투표회송우편물을 접수했다. 우체국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사전투표회송우편물을 접수해 2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했다. /서울지방우정청 제공

‘창경궁로’ 양방 통행한다

신호 개편 등 공사 끝나…종로 일대 차량 불편 해소

종로4가에서 원남로터리를 잇는 창경궁로가 10년 만에 양방통행 도로로 운영된다.

서울시 종로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인 성북과 강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창경궁로에서 지난 1일부터 양방향 통행이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창경궁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 직전에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일방통행로로 변경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일방통행으로 지역 진·출입에 불편이 생기자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방통행 환원을 요구해왔다.

결국 종로구는 교통전문 용역기관과 함께 창경궁로 양방통행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지난해 7월 양방향 통행을 결정했다.

이어 교통체계 변경을 위한 각종 토목공사와 지장물 이설공사, 교통신호기 이정표 등의 공사를 지난달 말 마쳤다.

이로써 원남로터리에서 종로4가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었던 창경궁로는 앞으로 4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종로구는 “양방통행 복원으로 종로1·4가동과 종로5·6가동은 물론 인근 효제동과 충신동 일대의 차량 진출입 불편이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종로5가 교차로에서 청계천 방면 직진 허용문제와 원남교차로에서 혜화 교차로 방면 직진 금지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외모 불만 있을수록 온라인서 공격적”

자신의 외모에 불만이나 콤플렉스를 느끼는 누리꾼이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쉽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일 “최근 열린 제7차 아동복지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위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송주영 부연구위원이 ‘한국 학교폭력의 실태 –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이버따돌림 유형별 예측 모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 뉴스 사이트와 블로그, SNS, 게시판 등에 올라온 ‘집단 따돌림’과 관련한 글 43만5000여 건을 분석했다. 특히 글에 드러난 표현뿐만 아니라 내재한 심리를 해석하고 분류하는 ‘감성분석’을 통해 누리꾼의 성향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3가지로 나눠 진단했다.

이 결과 인터넷 공간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는 대인 기피 성향이 있고 사회성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방관자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준기자



세월호 재판 참관 경쟁률 3대 1 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10일 열리는 세월호 선원들의 첫 재판 참관을 위한 방청권 추첨이 진행되고 있다. 주법정과 보조법정에서 20명이 참관할 수 있는 이번 재판 참관에는 모두 67명(7명 중도포기)이 신청했다. /연합뉴스

50대男 토막살해한 30대女

“성관계 강요 피하려” 주장

30대 여성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36·여)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비닐·세제 등을 구입, B씨의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모텔 안의 살해 흔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B씨를 알게 된 후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며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ydh@

정부, 민간 구급차 관리 강화

정부가 민간 구급차들의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의무 신고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 구급차 관련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민간 구급차는 의무 신고제 도입으로 신고를 거쳐 필증을 받고 운행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구급차는 법령 시행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법령 시행 후 등록하는 구급차는 등록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필증도 구급차에 항상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구급차에 미터기를 설치해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도 마련해야 한다. 환자 이송 거리와 응급구조사(의사 또는 간호사)의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이송 요금을 환자와 보호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송료는 현재보다 50% 정도 인상된다. 민간 구급차 중 일반 구급차를 이용하면 기본 요금 3만원에 10㎞ 초과시 1㎞당 1000원을, 특수 구급차의 경우에는 기본 요금 7만5000원에 10㎞ 초과시 1㎞당 13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도 등 자치단체들의 지적을 반영해 특수 구급차 5대당 응급구조사와 운전기사를 각 12명씩 총 24명 배치하던 인력기준도 총 16명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장비와 인건비 등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료를 현실화했다. 의료 취약지 등을 중심으로 이송료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고시원 34곳 소방시설 지원

서울시가 화재에 취약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34곳에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09년 7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영업한 고시원 중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고시원 복도 폭(1.2m~1.5m),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운영자들이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5억원을 들여 이들 고시원의 방 1445개에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한다.

/김민준기자

강북구, 정기연주회 개최

서울시 강북구가 오는 7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2014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연주회는 이건수 상임지휘자와 학생 단원 등 총 81명이 참여한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당일 선착순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용산구, 이유기 영양교실

서울시 용산구가 영유아 가족과 임산부에게 이유식의 중요성과 조리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유기 영양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용산구보건소 지하1층 건강교육실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두 번째 ‘빈벽 프로젝트’

서울시 금천구는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샘’에서 오는 8일부터 두 번째 ‘빈벽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구는 문화예술에 취미를 가진 주민 누구나 전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선정 – 동부화재

동부화재

운전중 교통상해사망까지 보장하는 보험 –

생명보험이에요? 운전자보험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운전중 교통상해사망시
3억원 일시금 지급
(특약 가입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다치게 되면 얼마나 보장하나요?

자동차 부상치료비
14등급(**5만원**)~1등급(**400만원**)**지급**
(특약 가입시)



매년마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는 않나요?

갱신·할증없이
월 11,990원
(20년 만기 20년 납, 월납, 자가용운전자 기준)

갱신없이~할증없이~
이 보험 하나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
(피해자 사망/중상해, 중과실사고시, 특약가입시)
정식기소시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특약가입시)
법원판결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비례보상(특약가입시)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운전자종합보험 1404

● 보험료 예시

[20년만기 20년납, 월납, 자가용운전자기준, 단위 : 원]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30세남	30세여	40세남	40세여	50세남	50세여
보통약관	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보통약관)	교통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1,000만원	102	71	102	71	102	71
특별약관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사망시 일시금으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0만원	4,350	2,190	4,350	2,190	4,350	2,190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입원 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만원	554	704	554	704	554	704
	자동차부상치료비 II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별 5만 ~ 400만원 지급	400만원	1,656	734	1,656	734	1,656	734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피해자 사망, 피해자 중상해, 중대법규위반사고)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3,000만원	2,275	2,274	2,275	2,274	2,275	2,27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또는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500만원	117	117	117	117	117	117
	벌금 (실손)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000만원	293	293	293	293	293	293
보장보험료 합계				9,347	6,383	9,347	6,383	9,347	6,383
적립보험료 합계				2,643	5,607	2,643	5,607	2,643	5,607
납입보험료 합계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11,990

예시보험료는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벌금(실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비용담보는 음주,무면허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영업용/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6종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6종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6종건설기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20년만기, 20년납, 상해1급, 남자 40세, 자가용운전자, 월납11,990원, 단위 : 원, %]

경과연수	납입보험료	예상 해지환급금(률)					
		최저보증이율		표준이율		표준이율 × 1.2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1년	143,880	–	0.0%	–	0.0%	–	0.0%
3년	431,640	45,230	10.5%	47,250	10.9%	47,450	11.0%
5년	719,400	100,310	13.9%	106,040	14.7%	106,630	14.8%
7년	1,007,160	156,990	15.6%	168,550	16.7%	169,750	16.9%
10년	1,438,800	246,050	17.1%	271,290	18.9%	273,970	19.0%
16년	2,302,080	436,460	19.0%	511,380	22.2%	519,690	22.6%
20년	2,887,600	573,050	19.9%	701,170	24.4%	715,780	24.9%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해당이율로 부리,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 예상해지(만기)환급금 및 환급률은 최저보증이율(1.5%), 「표준이율(3.5%)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및 「표준이율×1.2와 이 계약의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장성공시이율1304(월변동금리, 2014년 04월 현재 3.7%)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립부분 부리이율인 이 계약의 공시이율(보장성공시이율1304)을 적용하여 산출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하므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지환급률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기되었기에 해지환급률에 납입보험료를 곱한 금액과 기재된 환급금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만 받으셔도
불스원 3종세트 무료증정
경품제공_(주)동부화재 해상보험
경품증정대상_전화 상담고객(단,1인 1회에 한하여 지급)



080-249-7000

• 계약자는 청약을 한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철회가능하며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등 비례보상 담보의 경우 이전에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4-0614호(2014.3.31)〉

metro Russia


Картины собрали из головоломок

metro Brazil


Em 2012, 56 mil
assassinados no B

Mapa da Violência. Número é o maior registrado no país desde 1
dados começaram a ser analisados. Índice por 100 mil habitantes t

살인사건 발생률 日의 100배

브라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살인사건 발생률을 기록했다. 198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12년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총 5만 6337건으로 밝혀졌다. 전년도인 2011년에 비해 7.9% 증가해 10만명 당 29명이 범죄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이는 10만 명 당 10명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는 국제보건기구의 기준을 세 배 가량 넘어선 수치다. 현재 브라질의 살인사건 사망률은 일본의 100배다.

metro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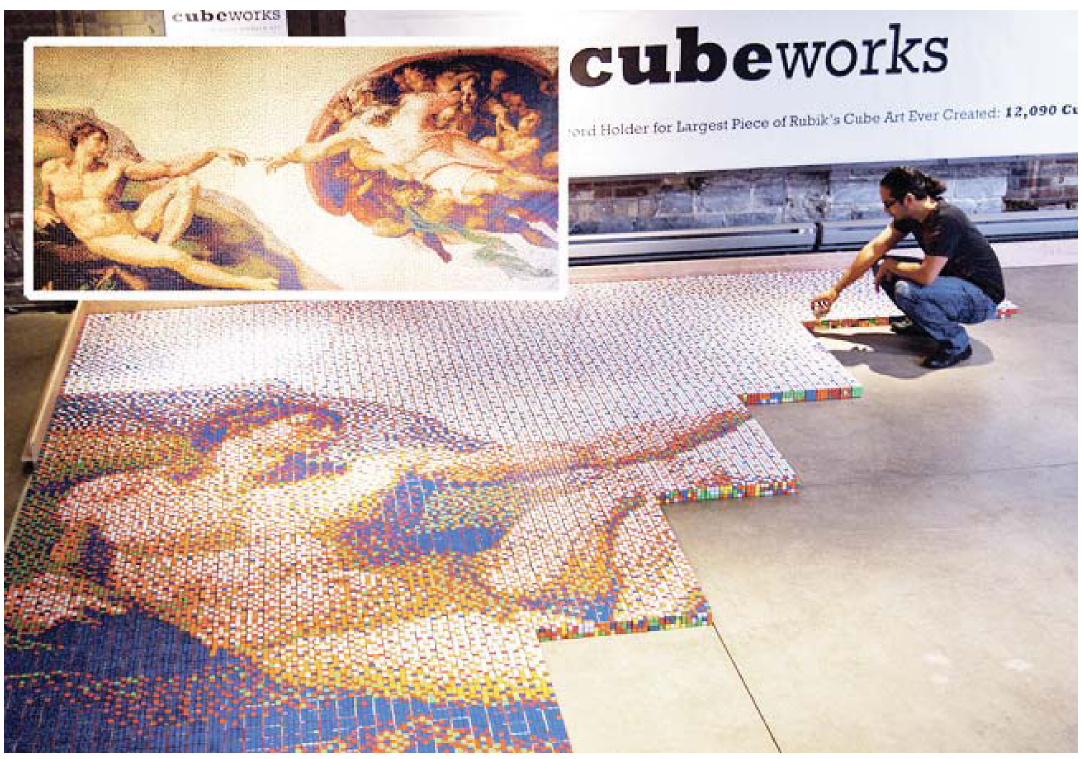

n-être pour
ines de la rue

노숙자 위한 무료 '마사지 행사'

프랑스 낭트에서 노숙자들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행사가 인기다. 클레르퐁텐센터는 한달에 한 번 오후에 마사지를 제공한다. 미용협회의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 노숙자는 무료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자 테라피스트 오렐리는 "가난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또 협회의 회장 제랄 브리우즈는 "노숙자들도 스스로를 가꿀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큐브 4000개로 '최후의 만찬' 재현

캐나다 예술가 대형 명화 작품 제작 눈길… 기네스북 기록 보유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디자인 센터 '아트플레이'에서 큐브로 만든 미술 전시회 큐브아트(CubeArt)가 개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캐나다의 큐브 전문 예술가 '큐브워크 스튜디오'가 루빅스 큐브를 사용해 만든 이번 전시회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큐브로 표현한 다수의 작품을 볼 수 있다.

큐브워크 스튜디오의 예술가 마이크 모노사오는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큐브를 맞추기도 하고 시간이 촉박할 경우에는 이미 맞춰 놓은 큐브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작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번에 전시된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은 모두 4000개의 큐브가 사용됐으며 세계 최초의 큐브 그림 기네스북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그림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갑부에게 얼마 전 팔렸다. 모스크바 전시회를 위해 다시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큐브 그림은 먼저 디자인 스케치를 한 뒤 그에 따라 큐브를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모노사오는 "작품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각은 제각각"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엥그리 버드는 색이 다양하지 않아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최후의 만찬은 큐브의 각 면을 돌려 다양한 색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린다"고 밝혔다.

큐브 그림은 40년 전 제품이 출시된 직후부터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하지만 대형 명화를 큐브로 표현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큐브워크스튜디오가 유일하다. 큐브워크 스튜디오는 큐브 작품과 관련된 세계 신기록을 3개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마카오에서는 8만5794개의 큐브를 이용한 거대 파노라마 작품을 완성했다.

모노사오는 "마카오 프로젝트는 한 달여 동안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Peru



빨간 감자 보셨나요? 리마 축제 열기 후끈

최근 페루 수도 리마에서 '토종 감자 축제'가 열렸다.

페루 안데스 감자 조합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페루 전역 5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감자로 만든 요리를 관광객과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자리다.

페루는 무려 3500개 이상의 종(種)을 보유한 '감자 강국'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속이 붉은색을 띠어 '황소의 피'라는 이름을 가진 감자와 파란색 감자 등 평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귀 종의 감자가 참가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딜베르토 소토 감자 조합 회장은 "사람들에게 우리 감자를 알리기 위해 매년 행사를 열 생각이다. 이를 통해 감자 소비량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대규모 이벤트인만큼 정부 당국도 손을 거들었다.

페루 농림부·환경부가 장소 섭외와 재료 운송을 도왔고 민간 농업 단체도 행사 준비에 참여했다. 특히 리마에 있는 60여개 식당은 오는 8월 31일까지 토종 감자로 만든 특별 메뉴를 판매할 계획이다.

소토 회장은 "식당은 특별 메뉴를 위해 필요한 감자를 지난해에 이미 조합에 주문했다"면서 "1년 동안 공들여서 기른 감자라 더욱 맛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남미가 원산지인 감자는 스페인 침략자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됐고 이후 전 세계에서 즐겨 사용되는 식재료가 됐다.

/정리=조선미기자



UHD 콘텐츠 경쟁시대 열렸다

유맥스 이어 스카이UHD 채널 개국

KT스카이라이프가 2일 '스카이(Sky)UHD' 채널을 상용화하면서 UHD 콘텐츠 경쟁 시대가 열렸다. 지난 4월엔 케이블TV 업계가 UHD 방송채널 '유맥스(UMAX)'를 개국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오전 서울 목동 KT체임버홀에서 전국 UHD 방송채널인 'SkyUHD 개국 기념식'을 가졌다.

SkyUHD는 24시간 UHD방송 채널로, 상용위성인 무궁화6호를 통해 고효율 비디오 코딩(HEVC)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서비스 초기엔 전국 UHD TV 대리점을 중심으로 SkyUHD 전용 셋톱박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께 가정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UHD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보급형 셋톱박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초기 UHD 전용 콘텐츠 수급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현재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2시간, 국내나 해외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이 4시간여에 불과해 서비스 초기엔 일일 4시간 순환편성 형태로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국내나 해외에서 UHD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과 협력해 연내 230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2일 서울 목동 KT체임버홀에서 'SkyUHD 개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왼쪽부터 순서대로)윤종록 미래부 차관, 황창규 KT 회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이 송출식에서 버튼을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제공

이 사장은 이어 "2015년까지 총 102억원을 투자해 UHD 스튜디오, 편집시설, 제작전문인력 육성까지 '논스톱 UHD 제작인프라'를 구축하고 UHD 콘텐츠 확보에도 투자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2015년까지 SkyUHD 총 3개의 채널을 론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개국한 SkyUHD1 채널을 풍경, 갤러리 등 '휴(休)채널' 콘셉트 위주로 구성한 후 미드 UHD 콘텐츠 위주의 SkyUHD2 채널과 지상파, PP, 해외사업자 제휴 콘텐츠 위주의 SkyUHD 3 채널까지 론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10일 상용화를 시작한 유맥스 채널도 서비스가 보급된지 2개월여 지났지만 여전히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꾸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인천 전국체전'을 UHDTV 콘텐츠로 제작한 티브로드는 올해 9월 열리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 역시 UHD 콘텐츠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에 17억원 규모의 UHD 제작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현대HCN은 홈초이스와 공동으로 제작한 UHD 방송 콘텐츠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맥스는 UHD 콘텐츠 수급을 위해 2016년까지 약 4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진행한다.

한편 유료방송업계에서는 UHD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수급 확보를 위해 지상파, 제조사 등 투자 협력이 잇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UHD 시장 선도를 위해 유료방송업계뿐 아니라 지상파, 제조사간 협력이 필요할 때"라며 "케이블TV·IPTV·지상파간 콘텐츠 제작 및 수급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삼성전자·LG전자 등 제조사가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고려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쉬지 못하는 한국인

퇴직 후에도 10년 넘게 일해

한국인들이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실질적인 은퇴시점)은 평균 71.1세다.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칠레 69.4세, 일본 69.1세, 포르투갈 68.4세, 아이슬란드 68.2세 등도 OECD 평균(64.2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이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공식 은퇴연령(60세)과는 11.1세 차이가 나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정년퇴직 후에도 일터에서 가장 많이 일한다는 뜻이다.

한국여성의 유효 은퇴연령도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조기 은퇴해 여유를 누리는 유럽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퇴직금, 연금만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없어 고령임에도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52.2%로 10년 전인 2003년(48.6%)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여성은 같은 기간 27.8%에서 29.0%로 1.2%포인트 올랐다. /이국명기자 kmlee@



천송이 선글라스가 한 자리에 신세계백화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점에서 천송이 선글라스로 화제가 된 '젠틀몬스터' 팝업스토어를 열고 다양한 선글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 부진에도 '독야청청'

증권가, 화장품 업종 주목

국내 내수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선방하는 화장품 업종이 증권가의 새로운 관심업종으로 떠올랐다.

증권가는 잇따라 화장품 업종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필수소비재 업종이 그나마 낫고 그중에서도 화장품 업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봤다.

여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소비 경기가 어려우므로 국내 내수 부진과 연관 없이 개별 실적이 좋아지는 업체들을 선별했다"며 "중국 등 해외시장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화장품 업종이 다른 업종에 비해 괜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새로 이 업종을 들여다보는 증권사도 늘었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9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4곳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제시하며 화장품 업종에 대한 커버리지(분석)를 개시했다.

교보증권은 오는 하반기 한방의 약품과 메디컬뷰티 등 신규 화장품 사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한국콜마홀딩스와 코스맥스BTI 등 중소형 화장품 지주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제시했다.

동양증권은 대봉엘에스란 화장품 원료업체를 투자 종목으로 발굴해 선보였다. 다만 주가 측면에선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더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현정기자 hjkim1@

market index <2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2002.00	(+7.04)
코스닥	535.15	(−11.38)
금리(국고채 3년)	2.83	(+0.01)
환율(원·달러)	1024.00	(+3.70)

뉴스&뉴스



축구 꿈나무에게 희망을! 2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열린 '한국 P&G-롯데마트, 축구 꿈나무에게 희망을!' 행사에서 모델들이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웨이, 10기가 와이파이 성공

●화웨이가 업계 최초로 기존 와이파이 서비스보다 10배 빠른 10기가(Gbps) 와이파이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10Gbps의 초고속 와이파이 기술은 대기업 사무실, 공항, 경기장, 쇼핑몰, 커피점 등 인구 밀집 환경에서도 정체현상을 해소해 사용자 데이터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번 테스트에서 사용된 10Gbps 와이파이 프로토타입은 5GHz 주파수대 기준 10.53Gbps라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록했다. 해당 초고속 와이파이 기술은 2018년부터 상용화될 전망이다. /이재영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심판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한 의무휴업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최근 의무휴업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등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의무휴업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유통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의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했다. /김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금융권, 월드컵 특수 잡기 나섰다

은행, 금리·환전 우대… 보험·카드사, 할인 경품 행사 '봇물'

금융권이 이달 13일 개막하는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한국 대표팀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전 수수료 우대,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쏟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홈페이지 내에 '렛츠고 브라질오 필승 코리아'라는 미니 사이트 운영에 들어갔다. 퀴즈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는 브라질의 역사, 문화, 여행지 등의 정보는 물론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수 정보, 역대 전적 등을 담고 있다.

외환은행은 4월 1일부터 월드컵과 연계한 '외환 오! 필승코리아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3000만원을 1년간 맡길 수 있다. 기준금리(지난달 23일 기준 연 2.7%)에 16강 진출시 0.1% 포인트, 8강 진출시 0.2% 포인트, 4강 진출시 0.3%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현재 1만7000여명이 2710억원을 가입해 1000억원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올라! 브라질, 환전 카니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14일까지 환전, 해외송금, 외화예금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만원 여행상품권, 브라질월드컵 기념주화, 치킨 교환권 등의 경품을 준다. 또 이 기간 농협에서 미국 달러를 환전한 고객에게 환전수수료를 50% 인하해 주고 한국 대표팀이 8강에 진출하면 7월 1일부터 환율 우대 폭을 80%로 높여주기로 했다.

삼성카드는 이달초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대표팀의 득점과 승리 여부에 따라 1등 당첨자에게 최대 1500만 포인트를 적립해 줄 계획이다. 월드컵 기간 야간에 외식 업종을 이용한 회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이용 금액의 100%를 캐시백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하나SK카드는 오는 9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야식 배달 결제시 할인, 편의점 이용시 캐시백 제공 등의 혜택과 함께 홈페이지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16강 진출시 캐시백 두배 제공, 득점 맞추기 경품 제공 등의 이벤트을 진행한다.

보험업계도 월드컵 열기에 동참하고 있다.

LIG손해보험은 자사 계약 고객을 상대로 인터넷 창구 이용시 나타나는 축구공을 클릭해 그 숫자에 따라 추첨을 통해 캡슐커피머신, 외식상품권, 아이스크림 쿠폰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 메리츠화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응모로 TV, 월드컵 공인구, 국가대표 유니폼, 치킨·콜라 기프티콘 등을 지급하는 '고객과 함께 즐기는 2014 승리기원 이벤트'를 이달 한 달간 실시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브라질 월드컵 기념우표 판매 우정사업본부는 '2014 FIFA 브라질 월드컵 대회' 기념우표 2종 110만장을 3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연합뉴스

작년 이자갚는데 9조원

한전 등 18개 공기업 부채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 관리대상 공기업들이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 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금융부채만 98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하루에 65억원씩을 이자로 지급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LH와 한국전력 및 6개 발전 자회사 등 18개 부채 중점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 지급액은 9조74억원이다.

이는 18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 436조1000억원 중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로,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247억원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18개 공기업의 지난해 이자지급액은 2009년 6조2635억원의 약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0년 7조5162억원, 2011년 7조8261억원, 2012년 8조8775억원으로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려왔다. 5년간으로 합산하면 39조4907억원이나 된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과 6개 발전자회사(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의 연간 이자 지급액이 2조3443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하루 이자는 65억원에 이른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사랑 가득한 도자기와 쿠키 구세군 후생원 어린이들이 2일 서울 연희동 한국도자기 연희점에서 열린 '사랑 나눔, 재능 기부' 행사에 참석해 팝아티스트 찰스장이 디자인한 하트 제품과 자신이 그림을 그린 도자기, 호야쿡스 해외입양인 쉐프가 만든 쿠키를 들고 밝게 웃고 있다. 한국도자기는 이날 판매된 상품 수익금을 구세군 후생원 원생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황금연휴 '똑 '소리나게 환전하는 법

주거래 은행 이용… 동전으로 받으면 더 유리

오는 6월 초 황금연휴와 브라질 월드컵 등을 맞아 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원·달러 환율이 1020원선까지 내려가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로 비쳐지고 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꼭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환전이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휴가비용을 훨씬 더 아끼는 알뜰한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전을 잘하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해야한다.

첫째 주거래 은행을 통한 환전이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주거래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우대해 주는 환율우대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환율우대가 적용된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모두 환전할 필요는 없다. 경비의 30%가량만 현금으로 환전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거래 은행에서 사용하던 해외겸용 카드등을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뽑아쓰는 것이 현금을 몽땅 잃어버리는 일을 방지하고 환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동전으로 환전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외국 동전을 따로 수출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전으로 환전을 할 경우 매매 기준율의 70% 정도 가격에 환전이 가능하다.

세번째로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한 사이버 환전이다.

사이버 환전은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데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환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특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미리 환율 관련 앱을 깔아두고 은행별 현찰 매입, 매도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은행 등 금융사에서 실시하는 환율우대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보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농협은행과 하나금융그룹, SC은행 등에서는 환전 고객들을 위해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를 주고 있다.

이들 은행사들은 연휴와 브라질 월드컵 등을 맞아 환율 우대 혜택 뿐만 아니라 여행자보험 무료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상장사 실적 '극과 극'

올해 1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와 상장사협의회가 함께 발표한 12월 결산법인의 1분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실적 상위 10위에 드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하 개별기준)과 순이익 비중이 지난해 동기보다 더 높아졌다.

12월 결산법인 전체의 영업이익 가운데 상위 10위 상장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0.7%에서 올해 65.4%로 상승했다.

순이익도 상위 10위 상장사의 비중이 62.4%에서 67.6%로 높아졌다.

1분기 영업이익 상위 10개사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9.6%로 전체평균 11.0%를 크게 웃돌았고, 순이익 증가율 역시 12.8%로 집계돼 전체 상장사의 평균 상승률 4.1%의 3배였다.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상위 10곳이 9.9%인데 비해 전체 상장사는 6.2%로, 상위 그룹이 더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대비 순이익률은 상위 10곳이 9.2%로 전체평균 5.6%보다 높았다.

◆삼성전자 비중 증가세

삼성전자의 비중도 커지는 추세였다.

12월 결산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분기 30.1%에서 올해 33.5%로 증가했다.

삼성전자 순이익의 비중도 27.6%였던 것이 31.3%로 늘었다.

매출액 면에선 삼성전자의 비율이 13.0%로 작년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개별기준 매출액 상위 순위에서 지난해 8위였던 기아차가 올해 포스코와 LG전자를 제치고 6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김현정기자 hjkim1@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3
| 매주 수요일 밤 12시 |
그렇고 그런 뷰티쇼들
낚였어?
t.cast

현대차, 수출용 대형밴·픽업트럭 개발

포드 트랜짓·벤츠 스프린터가 경쟁 모델



현대차가 개발 중인 대형밴의 스파이샷. /출처=오토블로그

미국 상용밴 시장이 포드와 램, 닛산 등의 새 모델 출시와 더불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을 겨냥한 현대차의 대형밴 테스트 모습이 유럽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

현대차는 미니밴 스타렉스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덩치의 대형밴을 만든 적은 없다. 새 모델의 경쟁상대는 포드 트랜짓과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상용밴과 픽업 버전이다. 구동방식은 아직 밝혀진 게 없으나, 상용차의 특성상 후륜구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테리어에서는 대시보드 옆에 붙어 있는 기어 레버와 대형 스크린이 눈에 띈다. 앞좌석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기어 조작 편리성을 위해 스티어링 휠 오른쪽 아래에 기어 레버를 배치했으며, 현대차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내장한 스크린이 계기반과 같은 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픽업트럭 버전은 그동안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스타일이다. 리베로 같은 스타일이 있었지만 리베로는 소형 트럭이었다. 중대형 트럭은 모두 캡 오버(엔진룸 위에 승차공간이 있는 타입) 스타일이었다.

현대차의 이러한 시도는 북미와 유럽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럭의 안전도 기준이 우리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전면 충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닛이 앞으로 나온 세미 보닛 스타일 채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이 차는 럭셔리 밴 등 다양한 용도로 변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는 단순한 상용밴부터 호화 리무진까지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있다. 이 차의 한국 출시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해외 공장 생산 여부도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기업 59%, 입사시험 불합격 통보 안해

기업 10곳 중 6곳은 입사시험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52개사를 대상으로 '불합격 통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58.6%가 '통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소기업'(60.3%), '중견기업'(48.2%), '대기업'(36.8%) 순으로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불합격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로는 '더 큰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27.9%,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4%),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서'(17.4%), '합격자 공지로 확인할 수 있어서'(11.7%), '시간이 없어서'(11.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불합격 통보를 하는 기업(187개사)은 이유로 '지원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67.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기본적인 채용 매너라서'(48.1%),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서'(11.2%), '미 통보 시 문의로 업무에 지장이 생겨서'(5.9%) 등의 이유를 들었다.

불합격 통보를 하는 전형은 '최종 면접'(50.3%, 복수응답), '1차 면접'(43.3%), '서류'(36.4%) 순이었다.

통보 방식은 전형별로 모두 '문자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이국명기자 kmlee@



"커브드 UHDTV 구매하면 24시간 내 배송" 삼성전자는 30일까지 '삼성 커브드 초고화질(UHD) TV'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24시간 내 배송' 체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대림산업, 필리핀·싱가포르서 수주



싱가포르 지하철 톰슨라인도.

대림산업은 2일 필리핀 파그빌라오(Pagbilao)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공사와 싱가포르 톰슨(THOMSON)라인 지하철 건설공사를 잇달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프로젝트는 파그빌라오 에너지社가 발주한 것으로, 계약식은 발주처와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됐다.

대림산업은 필리핀 대림산업 현지법인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으며, 총 수주금액은 3억3200만 달러(약 3500억원) 규모다. 대림산업 지분은 1억8700만 달러(약 2000억원)이며, 대림산업 필리핀 현지법인 지분은 1억4500만 달러(약 1500억원)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735메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에 42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증설하는 것이다. 현장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 km 떨어진 파그빌라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설계 및 기자재 구매, 시공까지 책임지는 일괄도급(Lump Sum Turn Key)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공사기간은 총 42개월이다. 2017년 말 완공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오프라인 매장혁신 이끌겠다"

SK플래닛 '시럽' 브랜드 출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SK 플래닛 넥스트 커머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SK 플래닛 서진우 사장이 SK 플래닛의 '넥스트 커머스'를 소개하고 글로벌 진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오프라인 매장은 죽지 않았다. 230원조 규모에 달하는 170만 개 오프라인 매장의 혁신을 위해 SK플래닛이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서진우 SK플래닛 사장은 2일 나인트리컨벤션 광화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인과의 쇼핑, 외출 기회 등 오프라인 쇼핑 만의 장점이 있는 데다 모바일이 오프라인을 살리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주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SK플래닛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소비자의 스마트한 쇼핑생활 지원과 판매자를 위한 통합 마케팅 솔루션 제공을 핵심가치로 삼은 '넥스트 커머스'를 제시했다.

서 사장은 "넥스트 커머스는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커머스 행위를 쉽게, 편리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이라며 "SK플래닛이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노하우 등 핵심 자산과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의 연계를 통해 향후 통합 커머스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SK플래닛은 3700만 회원, 5만여 가맹점의 국내 최대 제휴 서비스 OK캐쉬백과 1200만 회원, 400여개 브랜드의 제휴 멤버십을 보유한 스마트월렛, 연내 모바일 거래액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11번가 등 온오프라인 양쪽에서의 독보적인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OK캐쉬백, 스마트월렛, 기프티콘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완성하고 ▲T맵 등 검증된 서비스는 물론 크고 작은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11번가, 쇼킹딜, T스토어 등 온라인 커머스와의 연계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와 함께 새로운 통합 커머스 브랜드 '시럽(syrup)'을 선보였다.

시럽은 시간, 장소, 목적에 맞는 쿠폰, 이벤트를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이를 위해 SK플래닛은 GPS기반의 가상 반경 설정기술인 지오펜싱(Geo-fencing), 저전력 블루투스 BLE(Bluetooth Low Energy), NFC등 IT기반의 신기술을 활용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어디까지 낮아질까… 분양가 인하 경쟁

양극화 심화되며 싼 아파트로만 수요자 몰려
주변 시세보다 저렴… 전세가 수준까지 하향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에만 약 2만6000가구가 공급됐고, 이달에도 2만7000여 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단지보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분양가 인하 전쟁도 한창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을 넘어 전셋값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26대책 발표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춰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추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입지가 비교적 떨어지는 단지에만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입지가 나은 아파트에서는 배짱을 부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지가 좋은 단지들도 착한 분양가를 내세워 수요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실제, 동탄2신도시에서 완판을 기록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3.0'은 전용면적 84㎡A타입의 분양가격이 2억9733만원에 책정됐다. 1신도시 아파트 84㎡ 전세가격 2억4000만~3억2000만원인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세난에 지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에서 큰 부담 없이 옮길 수 있는 새 아파트가 인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안은 이달 분양하는 위례신도시 A3-6b블록 '위례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 분양가를 3.3㎡당 1700만원 선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인근 잠실의 '리센츠', '엘스' 등 주요 아파트 전셋값이 2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에 견줘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위례신도시 중심상업지구인 트랜짓몰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휴먼링 안쪽에 위치해 입지면에서도 우수하다. 위례신사선의 중앙역이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입이 용이하다.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3.3㎡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적용한 '에이스 카운티 용인'

반도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 B7·8블록에서 분양하는 '소사벌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800만원 초반대다. 전용면적 84㎡ 기준 2억4800만~2억7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전세가격이 2억300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

동도건설은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에 분양 중인 '부천역 동도센트리움'도 전셋값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3.3㎡당 900만~1000만원대 초반으로, 전용면적 59㎡가 2억2000만~2억6000만원 선이다. 인근 중동신도시 내 아파트 전세가 2억2000만~2억3000만원과 비슷하다. 1~2층에 상업시설이 입점할 예정이며, 국철 부천역이 도보 5분 거리다.

에이스건설은 경기 용인시 이동면에서 선보인 '에이스 카운티 용인'에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문 3.3㎡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적용했다. 전용면적 74㎡가 2억원 안팎으로, 인근 삼가동 아파트의 전세가가 1억7000만원을 전후한다.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 적용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직물 질감 벽지 '패브릭' 출시 LG하우시스가 2일 직물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벽지 '패브릭'을 선보인 가운데, 주부 프로슈머 그룹으로 활동하는 지엔느들이 옷감으로 쓰이는 직물의 느낌과 최근 유행하고 있는 패턴 디자인을 구현한 벽지 신제품 '패브릭'을 선보이고 있다. /LG하우시스 제공

5월 월세 0.2% 하락… 14개월 연속↓

월세수요 감소와 월세공급 증가의 영향으로 전국 월세가격이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가격이 전월 대비 0.2%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월세수요 감소와 임대인의 월세선호에 따른 공급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2% 하락한 가운데 서울 -0.2%, 경기 -0.3%, 인천 -0.1%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이 -0.3%로 낙폭이 컸다.

지방광역시는 0.1% 뒷걸음질쳤다. 대전이 -0.0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광주와 부산이 0.1%씩 내렸다. 대구는 보합세를 기록했고, 유일하게 울산만 0.1% 상승했다. 울산은 기업들의 고용인구 증가로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각각 0.3%씩 빠졌고, 아파트(-0.2%)와 단독주택(-0.1%)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연립·다세대(-0.4%)과 단독주택(-0.2%)이 특히 약세를 나타냈고, 오피스텔(-0.3%)과 아파트(-0.2%)는 평균을 유지했다.

월세이율은 8개 시·도가 0.79%를 기록했으며, 수도권과 서울은 0.77%, 0.74%로 파악됐다. /박선옥기자

포스코건설, 수직증축 리모델링 첫 수주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이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분당 매화마을1단지 리모델링공사 시공사선정총회' 조합원 투표에서 88%의 높은 찬성률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1100억원 수준이다.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소재 '매화마을 1단지'는 국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후 첫 사업지로 주목을 받아 왔다. 지난 1995년 완공된 단지로서 지하 1층, 지상 15~20층, 6개동, 전용면적 67~81㎡, 562가구로 구성돼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2018년까지 별동 신축과 최대 3개층을 수직증축해 기존보다 84가구 증가한 646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 기존 2-bay 평면이 3-bay로 변경되고, 1층에는 개방감과 보행동선을 고려한 필로티가 들어선다. 이외 세대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지상정원, 각종 커뮤니티시설 등이 적용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도심재생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리모델링 설계 시공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리모델링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친환경과 리모델링을 접목한 전담부서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그룹'을 신설했다.

시대복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부사장)은 "분당 매화마을1단지는 기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첫 사례가 되는 만큼 포스코건설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더샵 브랜드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분야에서도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축적한 설계 시공기술력과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리모델링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선옥기자

폐쇄형 SNS에서도 진검승부 예고

카카오그룹, 1위 '네이버 밴드'에 도전장
카톡연계·공지강화·프로필 설정 차별화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개방형 SNS의 인기가 주춤해지며 이른바 '우리끼리 소통하는 모바일 공간' 폐쇄형 SNS의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2년 8월 네이버가 '밴드'를 출시하며 관심을 끌어온 이 시장에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카카오그룹'(사진)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국민 메신저 카톡과의 연동으로 사용자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그룹은 실제 출시 당일(2013년 9월 5일) 앱스토어 무료 앱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함은 물론 출시 100일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밴드가 게임플랫폼 '밴드게임'으로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 카카오그룹은 성장 동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그룹이 밴드를 겨냥해 최근 내세운 핵심은 '공지 기능'이다.

누구나 쉽게 공지를 작성해 그룹 모든 멤버에 전파할 수 있고 카톡으로 멤버에게 해당 메시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어 빠른 소통은 물론 필요 이상의 대화나 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지를 누가 읽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공지를 읽지 않은 친구나 가족에게 카톡으로 1:1 메시지를 보내 공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급한 결정사항은 물론 더욱 빠른 정보 공유와 모임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또 카카오그룹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 그룹별 상이한 프로필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동창·스터디·직장 동료 모임 등 다양한 그룹에서 활동하는 사용자 특성을 고려해 각각의 그룹에 서로 다른 이름과 프로필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재미를 더하며 10·20대를 사로잡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신학기를 맞아 카카오그룹이 선보인 '반 그룹 만들기' 기능을 통해 카카오그룹은 전월(2월) 대비 10대 사용자 수 68%, 20대 사용자 수 100% 증가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3월 코리안클릭 기준)했다.

이밖에 카카오그룹은 멤버가 업로드한 이미지, 동영상 모두를 한 자리에 모아 볼 수 있는 앨범 기능을 비롯해 투표, 일정 관리, 그룹 멤버 생일 알람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제공해 더욱 편리한 그룹 활동을 지원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사생활과 개인 정보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폐쇄형 SNS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친구나 가족 단위의 원활한 소통에 카카오그룹과 같은 브랜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가로모드·분할화면… 삼성 '갤럭시 W' 삼성전자가 3일 7인치 HD TFT 화면을 장착한 스마트폰 '갤럭시 W'를 SKT를 통해 출시한다. 이 제품은 큰 화면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제품 사용자환경을 가로로 설정할 수 있는 '가로모드'와 두 앱을 한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분할화면', '멀티윈도우' 등을 지원한다. /삼성전자 제공

가성비 높은 최강 복합기 "눈에 띄네"

꼼꼼IT리뷰

■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다큐프린트 CM215b'

대학생은 A4용지를 많이 쓴다. 과제물 제출을 비롯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PT 자료, 취업을 위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드는 종이가 적지 않다.

요즘은 초등학생이나 중·고교생도 A4용지를 제법 소비한다. 교과 과목의 핵심을 요약해 A4용지에 출력하는 일이 많고 대학생 만큼은 아니더라도 과제를 A4용지에 출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제는 비용이다. 출력을 할 때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소규모 인쇄소나 출력 업체에 맡길 경우 장당 100~300원을 내야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 속속 가정용



복합기를 들여놓고 있다. 인쇄, 복사, 스캔, 팩스 네가지 기능을 두루 갖춘 실속형 모델이 인기다.

후지제록스 프린터스 '다큐프린트 CM215b'은 그런 점에서 이 분야를 대표하는 모델이다.

일단 설치가 쉽다. 전문 기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간단한데 무선 제어 터치만 한 번 해주면 스마트폰으로도 출력 명령을 내릴 수 있다.

USB 단자도 눈에 띈다. USB 메모리 스틱을 넣은 뒤 문서나 이미지를 컴퓨터 없이도 프린터 자체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미덕은 돈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점이다.

최대 2000매를 찍을 수 있는 검은색 카트리지 가격은 4만6500원이며 빨강·파랑·노랑색의 경우 4만5000원 내외다. 컬러 토너는 700매와 1400매를 출력할 수 있는 두 가지 용량을 제공한다.

네 가지 색을 한데 모은 세트는 20만원인데 제품 가격이 다나와 기준 21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기값은 사실상 공짜인 셈이다. 동급 제품이 30만이 넘는 것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은 충분하다.

스마트폰 시대에도 가끔 팩스나 스캔 기능을 써야할 때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소위 '가성비' 최고 수준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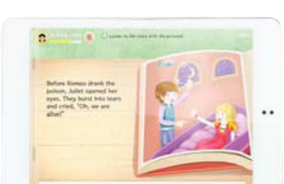
/박성훈기자

동화책으로 영어 문법 완성

'뇌새김 주니어 영어' 출시

동화책을 읽는 것만으로 어려운 영어 문법 공부를 끝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 위버스마인드가 '뇌새김 주니어 영어'(사진)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뇌새김 주니어 영어'는 동화책처럼 구성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통해 초·중학생이 문법·단어·쓰기 등 영어의 전 영역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동화책을 읽듯이 그림과 함께 스토리를 따라 가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어렵고 딱딱하고 느끼는 문법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또 150만 명이 체험한 뇌새김 워드로 단어실력을 다지고 필기 인식 시스템으로 쓰기 훈련까지 제공한다.

/이국명기자



복잡한 문서 대신 정답만 '콕'

다음 검색 '바로이거'

복잡한 문서 대신 정답만 콕 집어 알려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이같은 장점을 지닌 즉답 검색 서비스 '바로이거'(사진)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바로이거'는 문서 자동 분석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 검색 이용자들이 입력한 질의에 대해 방대한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람 갈비뼈 개수'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바로이거'에서는 이용자가 알고 싶은 정답인 '12쌍, 24개'를 제시한다. '사람 갈비뼈 개수'가 포함된 문서들을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다른 검색 서비스에 비해 훨씬 간편해진 셈이다.

'119 장난전화 벌금' '정지선 위반 벌금' 등의 생활 정보나 '100원 동전 무게' '밥 한 공기의 칼로리' 등의 궁금증도 '바로이거'를 이용해 바로 풀 수 있다.

다음은 약 50만 개의 검색어에 대해서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고 점차 대상 검색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국명기자 kmlee@

다이어트, 비타민·무기질 섭취가 필수



뉴트리라이트, 영양 균형 돕는 '바디키바이' 출시
원 푸드·황제 다이어트는 영양 불균형 도움 안돼



/뉴트리라이트 제공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휴가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여름철의 변화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자연스레 얇아지는 옷차림과 짧아지는 복장들로 겨울내내 숨겨 놨던 살들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기 때문이다. 올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이요법, 영양소 섭취 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보통 식이요법을 병행한 운동을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에 들어가기 전에 신진대사는 물론 에너지 발산에 필요한 영양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원 푸드 다이어트나 황제 다이어트 등은 한 가지 영양소만을 편향적으로 섭취해 몸의 균형을 해칠 뿐 영양소 섭취를 방해해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한다.

만약 영양 결핍이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면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겨 탈모나 빈혈 등이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이 오기도 한다.

◆건강 다이어트 비타민·무기질 섭취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적절한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영양소 섭취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중 감량 시 ▲피부 탄력 저하 방지 ▲노화 현상 예방 ▲체내의 산도 조절 ▲호르몬·효소 합성·수분 조절 등을 위한 필수 영양소라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건강식을 챙겨먹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식물 영양소'로 이름이 알려진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라이트의 '바디키바이 뉴트리라이트(bodykey by Nutrilite) 식사 대용 쉐이크 3종'을 추천한다.

바디키바이 뉴트리라이트 식사대용 쉐이크는 말 그대로 끼니를 대신 할 수 있는 식이요법 제품이다. 바쁜 현대인들의 식생활 패턴을 고려해 보다 간편히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제조된 것이 특징이다. 12종의 비타민, 8종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게다가 섭취칼로리를 낮춰 체중 조절에도 도움은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영양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스트레스·야근·불통>

현대百, '3폐' 없애기 나섰다

유통업계 최초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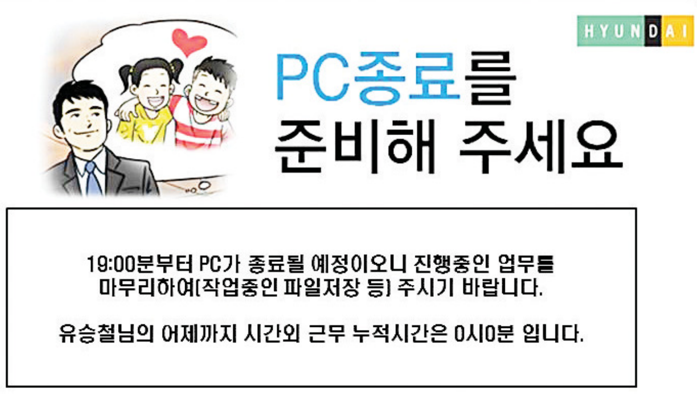
현대백화점그룹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조직생활의 '3대 폐해(弊害)' 없애기에 나섰다. 3폐는 야근(夜勤)·불통(不通)·스트레스다. 회사 생활에서 없어져야 할 세 가지 폐해를 말한다.

이 가운데 'PC오프제도'와 '사장님이 쏜다'를 통해 야근·불통 제거에 이미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 스트레스까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다음 달까지 현대백화점 본사와 전국 13개 점포 임직원 1700명,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현대HCN·현대H&S 등 그룹 전 계열사 직원 1400명 등 총 3100여 명에 대해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한다. 간부사원만이 아닌 전사 임직원을 상대로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 것은 유통업계 중 첫 사례라는 것이 그룹 측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검사는 건강검진과 함께 실시되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상·주의 요함·치료 필요'로 분류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온 직원에 대해선 의사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오후 6시30분 현대백화점그룹 직원들의 개인 PC화면에 나오는 종료 예정 안내 메시지.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치유 방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백화점그룹은 '무(無) 야근' 실천을 위해 올 초 퇴근시간에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오프제도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무 효율성 제고와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쓸데없는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PC오프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 연장근무가 17%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또 CEO와 회사 직원의 소통과 스킨십 강화를 위해 '사장님이 쏜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사내게시판에 고충 등을 털어놓으면 CEO가 직접 격려 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백화점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11년째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참여하는 '주니어보드'를 운영 중이다. 매달 한 차례씩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40여명의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영일기자 prms@

기능성은 기본, 향으로 고객 유혹

여름철 입·몸·머리 냄새 없애는 제품 가이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다.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신체 부위의 불쾌한 냄새는 감추면서 마치 내 몸에서 은은한 향을 내는것 같은 제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몸에서 나는 향 중에 신경 쓰기 어려운 곳 중 하나가 바로 입 냄새다. 이런 고민 없이 다른이와 대화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면 입안의 텁텁함을 없애주는 기능성 캔디가 좋다. 입안의 청량함을 돕는 기능성 캔디류는 한 알만 먹어도 입 속 불쾌한 냄새를 말끔하게 없애주는 것은 기본이며 더운 여름철에도 상쾌한 기분을 나게 한다.

허쉬 코리아의 아이스 브레이커스(ICE BREAKERS·사진)는 불쾌지수도 낮춰주고 입 속 향기로 센스까지 발휘할 수 있는 여름철 소셜 예절이다. 입에 닿으면 바로 느껴지는 시원함과 입안에 감도는 상큼한 향으로 기분을 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상쾌한 숨결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향까지 전달할 수 있다.

여름철 기능성 제품인 데오드란트는 땀을 억제하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향의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땀으로 인한 불쾌함을 없애주고 청결함까지 선사하는 데오드란트가 향수의 역할을 겸하면서 기능성도 발전하고 있다.

니베아의 데오드란트는 다양한 제형과 향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용 선호도가 높은 스틱타입의 경우 남성용으로 나온 제품을 포함해 6종으로 출시되고 있다. 이 제품은 땀 발생을 억제하고 땀 냄새를 방지해주는 기능을 기본으로 갖춰, 선호하는 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모발은 체취가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는 신체 부위 중 하나다. 따라서 여름철 샴푸를 선택할 때는 두피를 위한 기능성은 물론이고 제품의 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 샴푸는 향의 지속력만큼이나 은은하게 퍼지는 향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

애경의 '케라시스 퍼퓸 샴푸'는 대부분 꽃 추출 성분에서 나온 향기다. 제작단계에서부터 명품 향수를 모티브로, 처음 향부터 잔향까지 고려해 마치 향수를 뿌린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영일기자



황금연휴, 여행길 동반자 "챙기세요"

직장인이 손꼽아 기다리던 6월 황금연휴가 다가온다. 방학이 없는 직장인에겐 여행을 떠나기 좋은 시기다. 이번 황금연휴 여행길을 도와줄 아이템들을 소개한다.

'템퍼'의 '여행용 목베개'(사진)와 '자동차 시트'는 여행과 캠핑, 나들이를 위해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을 위한 제품이다.

여행길 장시간 이동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챙기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쌤소나이트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를 수납할 수 있도록 수직으로 여닫을 수 있는 전면 포켓을 장착, 수납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뉴 이노바'를 출시했다.

/정영일기자







아웃도어 라이프 셀렉트 샵, 감성캠핑 찾는 젊은층에 인기

국내 캠핑 인구는 200만 명을 넘어서고 시장 규모가 5000억원에 이르는 등 캠핑 관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캠핑 트렌드도 점차 다양화·개성화되고 있다.

특히 캠핑을 통해 음악·영화·음식 등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려는 젊은 캠핑족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성이 강화된 일반 아웃도어 용품보다는 아날로그 감성이 가미된 아이템으로 개성 있는 공간을 연출하려는 욕구가 커지는 추세다.

젊은 캠핑족들은 나만의 개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실용적인 캠핑 용품을 선호한다. 이런 기호에 맞춰 최근 아웃도어 라이프 셀렉샵이 등장해 이목을 끈다.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빙 편집숍 SOP는 글램핑 아웃도어(Glamping Outdoor)존을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캠핑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곳은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캠핑 아이템을 방문객이 논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대표 제품으로는 핌리코 접이식 덱 체어, 테이블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네이티브 팟 스탠드, 원목 소재의 캠핑의자와 테이블 등이 마련돼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에 좋은 보온성이 뛰어난 담요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김학철기자

신라스테이 '서머 고메 에디션' 출시

SHILLA STAY

호텔신라의 고급 비즈니스호텔 브랜드인 신라스테이(Shilla Stay)는 신라의 대표 여름 메뉴인 '애플망고 빙수'와 '블루베리 빙수'를 즐길 수 있는 '서머 고메 에디션(Summer Gourmet Edition)' 패키지를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신라호텔의 프리미엄 디저트를 즐기며 시원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2인용 패키지이다. 조식이 포함돼 있는 '서머 고메 에디션'과 조식과 석식 모두가 포함된 '서머 고메 에디션 위드 디너(with Dinner)' 중에 선택 가능하다. 서머 고메 에디션은 ▲객실 1박 ▲2인 조식 ▲애플망고 빙수 또는 블루베리 빙수(2인용)으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8만원(세금 별도)이다. 2인 석식 뷔페가 추가된 '서머 고메 에디션 with Dinner'는 28만원 (세금 별도)이다.



/서울신라호텔 제공

애플망고 빙수는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제주산 애플망고를 올린 후 직접 삶은 팥과 수제 망고 셔벗을 곁들어 먹는 신라의 시그니처 메뉴다. 빙수 중간 중간에 가미된 망고 처트니가 더욱 깊은 맛을 자아낸다. 블루베리 빙수는 우유 얼음 위에 유기농 블루베리와 블루베리 콩포트를 올리고 직접 삶은 팥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메뉴다.

이 패키지는 6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주말(금·토·일요일)에 한정 판매된다.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16일간은 평일에도 판매한다.

한편 신라스테이 동탄은 강남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최적지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또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그리고 호암미술관은 호텔에서 자동차로 불과 25분 걸리는 거리에 있어 주말에는 서울 근교로 데이트를 하는 20~30대 젊은 커플 고객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신라스테이 역삼점이 올해 10월 문을 열 예정이다. 또 2016년 까지 마포·서초·신대방·종로·서대문·울산·제주 등지에 10개 이상의 신라스테이가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예약문의: 02)2230-3000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강강술래 "문화 힐링 공짜로 즐기세요"

보니앤클라이드·웨타워크숍 공연티켓 증정 보양식 한우곰탕 등 인기상품 최대 30%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는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뮤지컬 및 전시회 티켓을 증정하는 문화 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보니 앤 클라이드'는 1930년대 실존했던 악명 높은 남녀 2인조 갱 보니 파커와 클라이드 배로우의 실제이야기를 다룬 뮤지컬로 엄기준, 박형식, 가희 등의 배우들이 열정적인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뜨거운 무대를 선사한다.



'판타지 제왕의 귀환 웨타 워크숍'은 영화 '호빗' '아바타' 등의 특수효과 작업을 맡은 웨타 워크숍의 대표 크리처 작품과 수석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360여점 작품과 콜렉터블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다.

고양 늘봄농원점에서도 이달 8일까지 국내 최초의 아이패드 화가 정병길씨의 '아이패드 그림이 생활속으로' 작품전시회를 통해 매장을 찾은 고객에게 이색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전매장을 통해선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의 원기회복에 좋은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국산 돼지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 10봉(50g) 2만5200원 등 인기상품도 30% 할인가로 제공한다.

/정영일기자 prms@

마운티아, 백패킹 열풍 '캠핑 라인업 강화'

아웃도어 브랜드 마운티아(대표 강태선)는 백패킹용 알파인 텐트부터 대형 텐트까지 캠핑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브랜드는 올해 캠핑 사업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0% 신장한 60억으로 잡고 1~2인용 전문가형 알파인 텐트부터 기본 4인용 오토텐트인 아말피 돔텐트와 대가족을 위한 오디세이 빅돔텐트를 대표 제품으로 출시했다.

회사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백패킹 열풍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알파인 텐트와 대형 텐트를 선보이며 올해 캠핑 대표 브랜드로 안착한다는 계획이다.



박만식 마운티아 기획본부 이사는 "올해는 처음으로 캠핑을 접하는 초보 캠퍼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베네통 키즈, 명품 아역들 화보 공개

베네통 키즈(대표 김창수)는 10살 동갑내기 아역 배우 김유빈·김태준·이장경의 일상을 콘셉트로 한 아동화 패션 화보 블링팝 파파라치를 공개했다.

최근 각 방송사 드라마에서 멋진 연기 실력을 보여줬던 세 아이들은 드라마 촬영장이 아닌 일상으로 나와 봄 날씨에 어울리는 싱그러운 패션 스타일을 뽐냈다.

화보에서 아이들이 착용한 블링팝 시리즈는 반짝이는 소재로 포인트를 더해 톡톡 튀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김학철기자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르네상스 서울호텔, 웨딩 프로모션 선봬

예비 부부 '하우스 웨딩'·'윤달 프로모션' 진행

르네상스 서울호텔이 다양한 하반기 웨딩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먼저 합리적인 가격에 웨딩을 계획하는 고객을 위한 '소규모 하우스 웨딩'은 유니버셜 홀에서 최소 100명 이상 규모의 웨딩을 예약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훈제연어, 안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 6코스 양식 메뉴가 5만5000원(세금·봉사료 포함)에 제공되며 꽃 장식은 275만원이다.

또 10월 24일~1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윤달 프로모션'은 예비 부부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선사한다.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예식을 진행할 경우 스페셜 메뉴를 7만원(세금·봉사료 포함)에 이용할 수 있으며 와인 20% 할인, 피아노 3중주 공연의 혜택도 주어진다. 유니버셜 홀을 선택하는 고객에게는 5만5000원(세금·봉사료 포함)의 프로모션 메뉴가 제공되며 청첩장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02)2222-8600 /황재용기자



왼쪽부터 시세이도 파란 선케어 3종, 크리니크 이븐 베터 다크 스팟 디펜스, 오늘 와이드 썬 라인.

선 케어 제품, 어떤 것이 좋을까

자외선 차단기술 적용한 제품 눈길
아웃도어용 스프레이 타입도 인기

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선 케어 제품 출시가 일찍 시작됐다. 올 여름은 점점 더 강해지는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업체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

시세이도는 파란 선 케어 라인의 대표 제품 '파란 팩트' 등 3종에 세계 최초로 '수퍼베일-UV 360TM' 기술을 적용했다. 크리니크는 독자적인 기술인 '인비저블 스크린' 공법을 적용해 자외선이 피부에 닿기 전에 반사시키는 100%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이븐 베터 다크 스팟 디펜스'를 출시했다. 소망화장품의 오늘(Onl)에서는 선보인 '와이드 썬' 라인은 '올 라이트(All Light) 3단계 차단 솔루션'을 통해 자외선인 UVA, UVB를 차단하고 컴퓨터·스마트폰·TV 등에서 나오는 파랑·보라 계열의 빛까지 막아준다.

야외활동을 즐기는 '아웃도어족'을 위해 밖에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디용 스프레이 타입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존슨앤드존슨의 프리미엄 아비노에서는 순한 자외선 차단 선 스프레이 '하이드로스포츠 쉣스킨 스프레이'를 선보였다. 바나나보트의 '스포츠 쿨존 스프레이'는 쿨링 효과까지 가미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선 스프레이 제품이다. 에스쁘아는 피부 수분 공급과 자외선 차단의 선 케어 기능까지 갖춘 UV 미스트인 '프레쉬 유브이 미스트'를 출시하기도 했다.

◆아이·남성 제품 출시도 잇따라

최근에는 피부가 연약하고 민감한 아이들 전용의 순한 선 케어 제품도 인기다.

'아토팜 MLE 선크림'은 아토팜의 베스트셀러인 'MLE 크림'이 그대로 들어 있어 자외선을 차단하고 피부 보호막까지 강화시켜주는 고보습 선크림이다. 궁중비책의 '한방 선케어 시리즈'는 아이의 피부 타입과 월령, 활동 범위에 따라 제품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각자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남성 역시 스킨케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용 선 케어 제품을 선보이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남성용 제품의 특징은 남성들이 선블록을 꺼리는 이유로 꼽는 뻑뻑한 제형, 백탁 현상 및 번들거림, 선블록 특유의 냄새 등을 해결해 매일 아침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용 제품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의 '보닌 더 스타일 선 아쿠아 젤'과 한국오츠카제약의 '우르·오스 선블럭' 등이 올봄 남성 타깃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metroseoul.co.kr



에잇세컨즈, 27㎝ 핫팬츠 출시 삼성에버랜드의 SPA브랜드 에잇세컨즈는 지난해 완판을 기록한 핫팬츠를 50개의 스타일로 확장해 올해 다시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면·폴리우레탄 혼방 소재를 활용해 신축성 및 실용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에잇세컨즈는 아시아계 여성 체형에 최적화된 길이감을 찾기 위해 분석·실험을 한 결과 27㎝ 핫팬츠로 결정했다. /에잇세컨즈 제공

에일리, 지난 주말 게릴라 콘서트

동아오츠카, '오란씨 비타민TALK' 열어



동아오츠카의 '오란씨' 광고모델 에일리가 게릴라 콘서트로 관객 앞에 섰다.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는 지난 1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에일리와 함께하는 오란씨 비타민TALK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서트는 ▲소원카드 매달고 경품 추첨하는 비타민 트리 ▲에일리 게릴라 콘서트 ▲에일리의 오란씨 즉석 퀴즈 ▲오란씨 시음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에일리는 60분간 콘서트장에 버금가는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황재용기자

이대목동병원, '연합 학술대회' 개최

강서·양천구 등 지역 병·의원들과 의학 정보 교류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최근 병원 김옥길홀에서 '제8회 이대목동병원 및 협력 병의원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협력 병의원들과 친목을 나누고 최신 의학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유권 이대목동병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대목동병원의 든든한 동반자로 환자 진료와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협력 병의원 원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학술대회가 서로 간의 다양한 지식 교류와 만남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은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부천시 등 지역 협력 병의원들과의 긴밀한 의료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학술대회 외에도 '협력 병의원장의 밤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황금 연휴, 3일의 피부 기적 만들어볼까

단기간에 효과 볼 수 있는 제품 어떤게…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피부 관리가 어려운 직장인 여성들에게 이번 6월 첫 주는 황금 같은 기회다. 연휴 중 3일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외모를 가꿀 수 있도록 돕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이다.

헤어는 최근 피부·패션과 함께 뷰티의 3대요소로 꼽힐 만큼 많은 여성들의 고민거리가 됐다. 여름을 맞아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은데 파마나 염색 등으로 극심하게 손상된 머릿결이 고민이라면 이번 연휴를 이용해 관리하면 된다.

미장센 '퍼펙트 리페어' 라인은 7가지 오일 성분을 칵테일처럼 골고루 섞은 '7X 오일 칵테일 포뮬라'로 손상모 케어 효과를 극대화한다. 끊어지고 갈라지거나 거칠고 엉킨 모발은 부드럽게 가꿔주고, 모발 윤기와 탄력, 수분량과 강도는 한층 높여주는 등 많은 여성들의 헤어 고민을 3일 만에 해결해준다.

직장인 여성의 다크서클은 충분한 숙면을 취해도 회복하기 힘들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팔자 주름 역시 화장술로 감추기 어렵다. 성형수술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별도의 회복기간이 필요 없는 필러시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필러는 꺼지거나 함몰된 부위에 인체와 유사한 성분의 물질을 주입해서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로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적이다.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효과도 즉시 나타나는데, 그만큼 시술 전 정확한 진단과 상담은 필수이며 필러제품이 정품인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20대 여성들이 많이 찾는 이브아르 필러는 히알루론산 입자 굵기에 따라 총 6가지 제품 라인으로 구성돼 있어 원하는 부위와 목적에 맞게 시술 할 수 있다.



미장센 퍼펙트 리페어 라인. /미장센 제공

연휴를 이용해 단기간의 체중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단식이나 절식보다는 식이요법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뷰티푸드 브랜드 VB의 '칼로리DX'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하루 한 끼 200㎉로 영양도 챙기며 간편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뷰티푸드 연구소가 연구한 한국인의 식이 패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한국인에게 맞는 영양 구성비와 맛으로 이뤄져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신인상 타고 싶어요"

상큼한 매력의 걸그룹

베리굿

그룹 베리굿이 지난달 22일 '러브레터'로 데뷔했다. 좋은 열매를 맺자는 뜻의 베리굿은 태하(20·리더)·수빈(21)·이라(20)·나연(19)·고운(16), 다섯 멤버로 구성됐다. "올해 신인상을 꼭 탈 거다"라고 당차게 말하며 인터뷰내내 다섯 매력을 보였다.

◆ 청순한 콘셉트다.

나연 : 대부분의 아이돌이 데뷔를 강렬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데뷔 곡 '러브레터'는 클릭비 선배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부담감 없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가사도 서정적이다.

◆ 베리굿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태하 : 6~7년 동안 연습했다. 오디션으로 합류했고 대표님이 잘 봐준 거 같다. 어릴 때부터 가수만을 꿈꿨다. 베리굿은 멤버가 많이 바뀐 그룹이다. 데뷔를 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 실력 갖추려 노력했다.

수빈 : 전 소속사에선 행사만 돌아다녔다. 회사를 옮겨 지인의 추천으로 합류했다.

이라 : 교육자 집안이지만 공부하는 게 싫었다. 날라리는 아니었다. (웃음) 취미로 댄스 학원에 다녔다. 소속사는 두 번 옮겼다. 중3 때 데뷔한다고 했지만 무산됐다. 그 다음 회사에선 힙합을 내세워 데뷔시키려 했다. 지향점과 맞지 않아 또 나왔다. 베리굿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 주간아이돌 꼭 나가고 싶다
> 롤모델, 미래의 베리굿이죠

나연 : 초등학교 때부터 예체능에 관심 많았다. 12세 때 JYP UCC 오디션에 참가했다. 1차·2차에 합격 됐고 지역 예선을 엄마와 함께 갔다. 당시 장우영·구하라·윤두준·백예린 선배와 본선 무대에 함께 섰다. 반대하던 부모님이 가능성을 보고 적극 지원해주셨다.

고운 : 첫 회사다. 2년 동안 연습했다. 원래 꿈은 기자나 경영인이었는데 학교 축제 때마다 무대에 서면 희열을 느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에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게 됐다.

◆ (고운) 기자·경영인이 꿈이었다는 게 신기하다.

엄마가 영어 교사다. 유학파는 아니지만 영어에 자신있고 공부를 좋아한다.

나연 : 고운이는 14세에 토익 860점을 받았다. 베리굿의 똑똑이다. 공부 욕심도 남다르다. 시험 기간에는 밤 새워 공부한다.

◆ 처음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어색했나.

태하 : 이틀 동안 찍었다. 원래 취향과 달리 촬영하면서 귀여운 걸 처음 해봤다.

나연 : 처음엔 오그라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 수빈은 피팅 모델 출신이어서 표정이 정말 자연스럽다.

수빈 : 어릴 때부터 카메라에 적응하기 위해 모델을 했다.

◆ 이상형은?

태하 : 부드럽고 가정적인 남자가 좋다. 배우 이선균의 팬이다.

나연 : 어른스러우면서 과묵하고 섹시한 남자가 좋다. 그룹 엠블랙의 이준 선배. 이상형을 실제로 만나면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전 소속사가 엠블랙이 있는 제이튠캠프였다. 마주쳤는데 정말 모범적이고 4차원 매력도 있다.

수빈 : 첫인상은 차가워 보이지만 웃으면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좋다. 특히 코 옆에 피지 관리가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룹 SS501팬이다.

고운 : 순결한 남자가 이상형이다. (웃음) 배우 주원의 팬이다. 드라마·뮤지컬에서 연기를 잘 한다.

◆ 활동을 시작하면 만나고 싶은 남성 그룹은?

고운 : B1A4 선배. 베리굿과 비슷한 순수한 콘셉트다.

수빈 : 노래 '베리굿'으로 활동한 블락비 선배와 수다 떨고 싶다.

이라 : 우리는 상여자 콘셉트다. 상남자를 표방한 방탄소년단을 보고 싶다.

◆ 꼭 출연하고 싶은 방송은?

베리굿 : '주간아이돌'. 불러만 달라. 곧 간다.

나연 :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예승이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

수빈 : 짱구 성대모사 가능하다.

◆ 롤모델은?

제2의 소녀시대 같은 수식어보다는 베리굿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다. 물론 선배들의 무대를 보면서 배우고 있다. 궁극적인 롤모델은 미래의 베리굿이다. .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박정현 '싱크로퓨전' 발매

가수 박정현이 잠정 발매를 연기했던 새 앨범 '싱크로퓨전'의 발매 소식을 전했다.

박정현의 소속사인 블루프린트뮤직 측은 "박정현의 '싱크로퓨전'을 오는 6월 17일 발매한다"고 밝혔다.

박정현은 당초 지난 4월 18일을 이번 앨범 발매일로 확정했으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발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팬들에 대한 예의로 공개한 단 한 곡 '그 다음해'는 4월 29일 선공개해 엠넷, 벅스뮤직, 네이버, 다음, 소리바다 등 여러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국투어 중인 박정현은 14~15일 대구 공연과 다음달 5~6일 대전, 12~13일 일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양성운기자



박해진 디올의 남자 됐다

박해진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 옴므의 홍보 모델로 나서 패션 잡지 오피셜 옴므의 중국판 6월호 표지와 화보를 장식했다. 그는 이번 표지와 화보에서 시크함과 젠틀함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델로서 남다른 아우라를 뽐냈다.

소속사는 "박해진은 크리스 반 아쉐 디올 옴므 디자이너의 열렬한 구애로 홍보 모델로 발탁됐다. 디올쇼에 메인 VIP로 자리한 것은 물론 공식 인터뷰까지 소화하며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디올 뿐 아니라 많은 세계적인 브랜드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박해진은 현재 SBS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에서 엘리트 의사 한재준으로 출연하고 있다. /탁진현기자 tak0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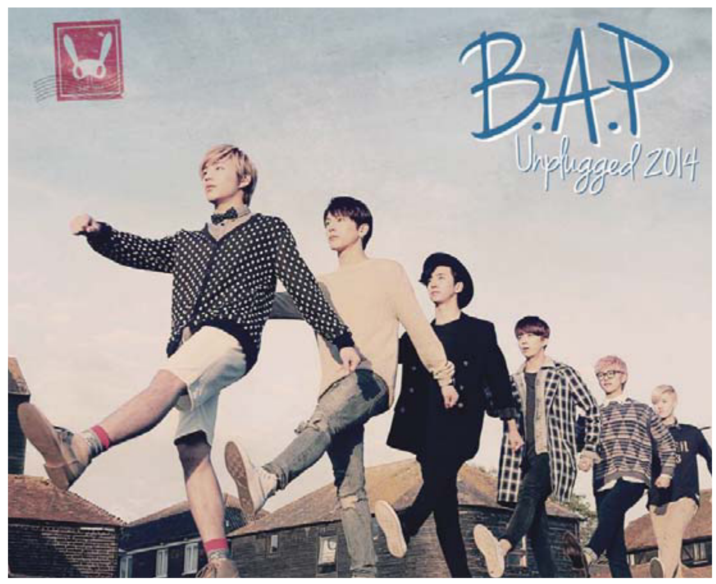
박해진이 디올의 홍보 모델로 참여한 오피셜 옴므 중국판 6월호 화보. /디올 옴므 제공


제국의 아이들


유키스

보이그룹 최강자 가리자

아이돌 이미지 탈피 선언
성숙한 음악 앨범에 담아



B.A.P

보이그룹이 잇달아 컴백을 알리면서 가요계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데뷔 5~6년차 보이그룹이 이달 연이어 컴백 소식을 알리고 있다. 단순하게 새 앨범 공개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키스는 2일 공개한 새 미니앨범 '끼부리지마'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다. 팀을 재정비한 이후 처음 선보인 '끼부리지마'는 서정적인 소울 사운드와 R&B 기반의 멜로디에 유키스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더해진 노래다. '끼부리지마'는 공개와 함께 파격적인 안무가 화제다.

뮤직비디오에는 유키스의 상체 노출신과 여성모델과의 아찔한 스킨십, 속옷노출 등 수위 높은 파격 영상이 담겨있다. 안무 역시 여성댄서들과 과감한 스킨십 동작으로 아찔함을 더한다. 이에 유키스의 컴백 무대에 대한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데뷔 5년차인 제국의 아이들도 2일 새 미니앨범 '퍼스트 옴므'를 발표했다.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해졌다.

제국의 아이들 측은 "성숙한 남자의 섹시함을 보여줄 생각"이라며 "이번 앨범을 통해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는 등 음악적으로도 많이 성숙했다. 기존 아이돌 음악과 같이 비트가 강한 음악보다는 감성적이면서도 음악성 높은 곡들로 앨범을 채웠다"고 전했다.

제국의 아이들의 새 앨범엔 타이틀곡 '숨소리'를 비롯해 헤어진 연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취중진담 형식으로 만든 R&B곡인 '비틀비틀', 지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케빈과 형식의 자작곡 '원' 등이 포함됐다.

3일 새 앨범을 공개하는 B.A.P도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나선다. 소속사 측은 "기존의 B.A.P가 선보였던 묵직한 힙합 사운드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아닌, 편안하고 부드러운 멜로디로 앨범을 꾸몄다"며 "하모니카, 기타 등 악기의 순수한 울림과 B.A.P 멤버들의 본연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있는 그대로의 매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요 관계자는 "데뷔 4년차를 넘어서면 보이그룹 멤버들이 음악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된다"며 "신구 아이돌의 변화로 가요계는 더욱 풍성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샤이니 상하이 첫 콘서트 뜨거웠다

자카르타서 투어 이어가

그룹 샤이니(사진)가 한국,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대만에 이어 중국 상하이도 뜨겁게 달궜다.

샤이니는 1일 중국 상하이 대무대에서 '샤이니 콘서트-샤이니 월드Ⅲ 인 상하이'를 열고 중국 현지 팬을 열광시켰다. 이번 공연은 샤이니가 데뷔 후 처음으로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단독 콘서트라는 점에서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이 날 공연에서 샤이니는 '줄리엣' '루시퍼' '링딩동' '드림 걸' 등 히트곡은 물론 '리얼' '이블' '너와 나의 거리' 등 앨범 수록곡까지 총 27곡의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며 대륙을 뜨겁게 달궜다.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팬들은 샤이니의 첫 상하이 단독 콘서트를 보기 위해 오전부터 공연장 일대에 운집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중국 팬은 '너와 나의 거리'에 맞춰 샤이니의 상징색인 펄 아쿠아 그린색 야광봉에서 흰색 야광봉으로 바꿔 들고 장관을 연출했다. 마지막 무대인 '초록비'에서는 '함께라서 행복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팬을 감동시켰다.

한편 샤이니는 오는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타일랑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고 투어를 이어간다. /양성운기자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줄 드라마가 온다!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6월 16일 (월) | 밤 11시 | tvN 첫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송혜교 소외 계층에 문화 나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티켓 800장 기부

배우 송혜교(사진)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티켓 800장을 기부하기로 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무국은 송혜교가 영화제의 티켓을 구입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막달레나공동체에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영화배우들의 문화 기부 모임인 '시네마엔젤'에 송혜교가 7번째 주자로 나서면서 이뤄졌다.

2007년 발족한 시네마엔젤은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영화 관람권 기부, 단편 및 독립영화 후원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현승 감독이 만들었으며 강혜정·공효진·류승범·박해일·배두나·송강호·신하균·안성기·유지태·이나영·이병헌·임수정·차승원·전도연·하정우·황정민 등 많은 스타들이 동참했다.

지난해에도 부산국제영화제 티켓 1000장을 기부한 송혜교는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5일까지 열린다. /탁진현기자



누아르답지 않은 누아르

film review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장진·차승원 시너지… 복합장르 묘미는 아쉬워

■하이힐

영화 '하이힐'은 누아르답지 않은 누아르다. 장진 감독의 개성 있는 연출은 거친 남자 영화에 감동을 더한다. 차승원의 연기는 관객의 감성을 자극한다.

작품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강력계 형사 윤지욱(차승원)이 운명을 뒤바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차승원의 눈빛 연기가 인상적이다. 윤지욱은 다부진 몸 곳곳에 철심을 박을 정도로 싸움에 능하며 조폭이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형사다. 그의 마초 기질은 제2의 자아인 여성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금기된 '비밀'을 대하는 차승원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관객을 슬프게 한다. 교회에서 "신의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공감을 자아낸다. 그의 여장이 코미디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정제된 액션이 재미를 더한다. 최근 국내 영화계의 대세는 날 것의 싸움이다. 그러나 작품 속 차승원의 우산 및 클럽 액션 장면은 세련됐다. 특히 우산 액션은 조직의 2인자 허곤(오정세)과 윤지욱의 첫 만남에서 그려진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우산 하나로 10여 명 이상의 조직원을 혼자 상대하는 그의 모습에 허곤은 경외심을 느낀다.

장진 감독의 연출은 새로운 누아르를 완성했다. 결국 여성이 되지 못한 윤지욱의 옆엔 '하이힐'이 버려져 있다. 성 담론을 다룬 상업 영화는 드물다. 여성의 상징인 '하이힐'로 감독은 진한 여운을 준다.

그러나 복합 장르의 묘미를 살리지 못했다. 영화는 윤지욱의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오고 가며 전개된다. 트랜스젠더와 청소년 윤지욱의 동성애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에선 탄력적이다. 그러나 윤지욱이 조직과 대립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를 영웅화하는 장면은 지루하다. 4일 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김소은 "귀신 분장 재미 쏠쏠"

'소녀괴담' 제작발표회

감성 공포 영화 '소녀괴담'이 올 여름 영화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준비를 마쳤다.

'소녀괴담' 제작보고회가 2일 서울 압구정 CGV에서 강하늘·김소은·김정태·한혜린·박두식 등 주연 배우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영화는 귀신을 보는 외톨이 소년이 기억을 잃은 소녀 귀신을 만나 우정을 나누면서 학교에 떠도는 핏빛 마스크 괴담과 반 친구들의 연쇄 실종, 그리고 소녀 귀신에 얽힌 비밀을 풀어간다는 내용이다.

소녀 귀신 역할을 맡은 김소은은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밤에 내가 귀신 분장을 하면 스태프들이 무서워하며 도망가더라. 괴롭히는 재미가 쏠쏠했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공포물과 달리 '썸'을 타는 로맨스가 있다"고 색다른 공포 영화임을 강조했다.

김정태는 "자동차 문을 다 잠궜는데 나중에 보니 열려 있었다. 목격자가 차가 깜빡깜빡 거리다가 갑자기 창문이 내려갔다고 말해 많이 놀랐고 섬뜩했다. 소금과 소주를 뿌렸다"고 촬영 중 일어난 일화를 소개했다.

영화는 다음달 3일 개봉된다. /탁진현기자



2일 열린 '소녀괴담' 제작 보고회에 참석한 김소은.

'님포매니악' 파격 예고편 공개

섹스버스터 표방한 문제작… 샤이아 라보프 등 출연

실제 정사 논란에 휩싸인 문제작 '님포매니악'이 파격적인 '19금' 예고편을 공개했다.

영화는 여자 색정광 조의 섹스 경험담을 대담하고 솔직하게 그렸으며 섹스버스터를 표방했다. '님포매니악' 예고편은 "여자로서의 힘을 악의적으로 휘둘렀다"는 조의 고백과 함께 어린 시절의 대담한 경험을 세련된 스타일로 담아냈다.

"날개가 있는데 날면 좀 어떤가", "섹스의 비밀스런 묘약은 사랑" 등의 의미심장한 대사와 수위 높은 정사 장면을 '센세이션! 전대미문 세기의 문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소개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연출을 맡은 '님포매니악'은 올해 초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공개되고 해외에서 먼저 개봉한 후 각국 언론과 평단, 관객으로부터 섹스 소재를 유머 넘치게 담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볼륨1'과 '볼륨2'로 나뉘어져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분량으로 공개되며 국내에서는 19일 개봉된다.

2009년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안티 크라이스트'로 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샤를로뜨 갱스부르와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른 샤이아 라보프를 비롯해 우마 서먼·스텔란 스카스가드·윌렘 대포·크리스찬 슬레이터·제이미 벨·코니 닐슨 등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tak0427@

2014년 이끌어갈 20대 남자스타 12인

모델·아이돌·뮤지컬배우 출신 배우들 다양한 경험 바탕으로 숨은 내공 열연

최근 연예계는 가히 20대 남자 배우 풍년이라 할 만큼 젊은 남성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들은 모델, 아이돌, 뮤지컬배우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안방극장은 물론 스크린까지 진출하며 맹활약 중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김수현

◆ ‘新 한류 4대 천황’ 김수현·김우빈·이민호·이종석

2010년대를 이끌고 있는 ‘신 한류 4대 천황’에 주로 거론 되는 배우들은 김수현·김우빈·이민호·이종석이다.

이민호는 2009년 KBS2 ‘꽃보다 남자’로 데뷔와 동시에 한류 스타가 됐다. 그는 이후 ‘개인의 취향’ ‘신의’ 등의 작품을 통해 탄탄한 팬덤을 확보했고 최근 ‘상속자들’에선 “나 너 좋아하냐”라는 유행어까지 만들며 입지를 굳혔다.

지난해 초 KBS2 ‘학교 2013’은 이종석과 김우빈이라는 모델 출신 신예들을 캐스팅해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을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각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SBS)와 ‘상속자들’(2014·SBS)을 통해 한류 스타로 거듭났다. 고등학생 연기를 주로 맡아왔던 이종석은 ‘닥터 이방인’에서 성인 연기에 도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2년 MBC ‘해를 품은 달’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김수현은 브라운관은 물론 스크린까지 섭렵했다. 특히 김수현은 SBS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 대륙을 뒤흔들며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네 사람은 모두 훤칠한 키와 준수한 마스크, 검증된 연기력을 바탕으로 알찬 필모그래피를 이어 가고 있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김우빈



이민호



이종석

◆ ‘대박 예감’ 박서준·서강준·강하늘·박민우

최근 TV에 등장하기만 하면 연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박서준·서강준·강하늘·박민우다.

현재 박서준과 서강준은 ‘연하남’ 캐릭터로 누나팬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박서준은 MBC ‘금나라와 뚝딱’과 SBS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각각 백진희와 한그루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아 여성시청자를 사로잡았다. 이어 그는 tvN ‘마녀의 연애’에서 19세 연상인 엄정화와 호흡을 맞추며 누나들의 마음까지 뒤흔들었다.

서강준은 첫 주연작 MBC ‘하늘재 살인사건’과 최근 종영한 MBC ‘앙큼한 돌싱녀’에서 문소리·이민정 등 연상의 여배우들과 연기하며 차세대 연하남으로 떠올랐다. 서강준과 함께 SBS ‘룸메이트’에 함께 출연 중인 박민우는 싱그러운 미소로 연기를 통해 볼 수 없었던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박민우는 2011년 tvN ‘꽃미남 라면 가게’로 데뷔해 MBC ‘스캔들’, JTBC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등에서 꾸준히 연기 실력을 쌓아오던 중 예능 프로그램 ‘룸메이트’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강하늘은 SBS ‘엔젤아이즈’에서 이상윤 아역으로 등장해 성공적인 데뷔 신고식을 치렀다. 아역 분량이 끝나자 시청자들이 게시판에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로 강하늘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뮤지컬배우 출신인 강하늘은 연기는 물론 노래 실력도 출중해 앞으로 크게 성장할 배우라고 평가 받고 있다.



박민우



박서준



서강준



강하늘



김현중

◆ ‘아이돌 출신 약진’ 김현중·김재중·박유천·임시완

아이돌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면 어설픈 연기로 극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돌 출연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시선은 냉정하기만 하다. 하지만 김현중·김재중·박유천·임시완은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도 될 만큼 괜찮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KBS2 ‘꽃보다 남자’에서 경직된 표정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던 김현중은 ‘감격시대’를 통해 연기력 논란을 잠재웠다. 박유천은 SBS ‘쓰리데이즈’에서 주연을 꿰차며 아이돌 원톱 주연 작품도 잘 만든 드라마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

박유천과 함께 그룹 JYJ로 활동 중인 김재중은 제국의 아이들 임시완과 함께 MBC ‘트라이앵글’에 출연 중이다. 김재중과 임시완은 영화에도 도전하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임시완은 지난해 영화 ‘변호인’ 촬영 당시 경찰에게 고문 받는 장면을 대역 없이 소화하는 등 연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사람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기에 도전하려는 후배 아이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김재중



박유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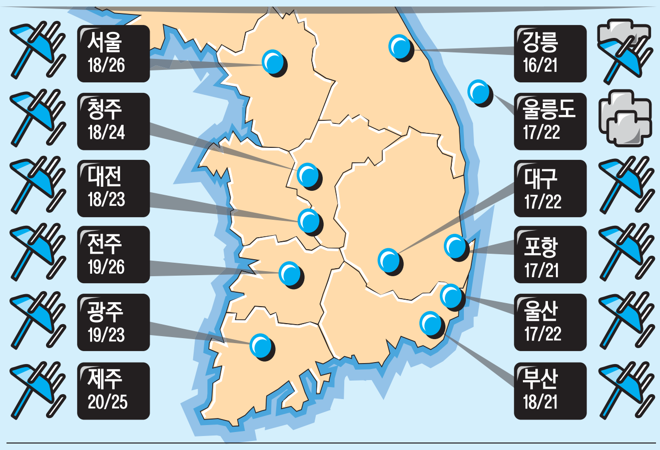


임시완

날씨

6/3 火 일출시각 05:12 일몰시각 19: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피로와 스트레스가 많으면 두꺼운 메이크업을 삼가야 합니다. 또 메이크업 노폐물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클렌징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8		
		6			7	9		
2		1		6			4	5
		7						1
	5	2	6		1	4	3	
3						6		
1	2			9		3		6
		5	8			2		
		8						4

		5	4					
			3				4	1
	4	3	7			6	5	2
5					3		9	
			5		6			
	7		2					3
7	5	8			1	3	6	
2	6				7			
					5	2		

스도쿠 정답

7	4	3	1	5	9	8	6	2
5	8	6	4	2	7	9	1	3
2	9	1	3	6	8	7	4	5
4	6	7	9	8	3	5	2	1
8	5	2	6	7	1	4	3	9
3	1	9	5	4	2	6	7	8
1	2	4	7	9	5	3	8	6
6	3	5	8	1	4	2	9	7
9	7	8	2	3	6	1	5	4

8	1	5	4	6	2	7	3	9
6	2	7	3	5	9	8	4	1
9	4	3	7	1	8	6	5	2
5	8	2	1	7	3	4	9	6
4	3	9	5	8	6	1	2	7
1	7	6	2	9	4	5	8	3
7	5	8	9	2	1	3	6	4
2	6	4	8	3	7	9	1	5
3	9	1	4	6	5	2	7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본질을 응원하자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가수 이선희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그녀는 84년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받은 이후 살아 있는 전설이 됐다. 최근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란 곡을 발표했는데, 청장년층은 물론 신세대마저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신곡은 요즘의 곡들과 달리 거칠게 녹음됐다. 첨단 디지털 음향이 배제됐고, 가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그녀의 가창력은 예전 같지 못하지만, 그녀의 노래는 전 세대를 아우르기에 충분하다.

현대자동차는 7세대 쏘나타를 선보이면서 자동차의 본질을 강조했다. '첨단 사양을 덧붙이기 전에 기본이 되는 차체부터 견고해지는 것이 먼저'라며 주행·회전·정지·보호 등을 핵심 요소로 부각시킨 것이다. 쏘나타는 1985년 첫 선을 보인 이후 30년 만에 환골탈태를 시도했고,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은 '스컬프처 디자인(Sculpture Design)'의 근간을 형태에서 본질로 옮긴 셈이다.

최근 디자인 모티브는 대자연(Mother Nature)과 원시부족(Primitive Society)에서 가져온다. 예전부터 자연과 원시성은 디자인의 핵심이었다. 달라진 것은 자연이나 원시성의 형태를 현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형성된 과정, 원시부족의 삶이 지녔던 과정에서 감춰졌던 이야기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지층의 패턴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층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인류의 사상과 행위를 상상하는 바가 디자인의 요소가 된다. 눈으로 보이는 요소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히는 요소를 디자인 모티브로 차용한다는 얘기다.

내일은 지방선거일이다.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마을마저 현수막과 후보인사, 유인물로 북새통이다. 본질을 추구하는 트렌드 때문인지 이전 선거 때와는 조금 다른 기운의 메시지가 눈에 띈다. 화려하게 치장되지 않은 담백한 공약이 반갑다. 정치·행정가로서 가져야 할 본질에 집중하는 모양이다. 이젠 대중이 본질의 가치에 응답해야 할 때다. 투표라는 정치행위로, 소비라는 경제행위로 본질을 응원하자.

본질, 그 유구한 진리의 값이 떠오르고 있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재복 있다는데 장래 어떨지요 야산 매입해 과실수 심으세요

hynin 남자 86년 6월 22일 10시

Q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6월 22일을 해산일로 예상하셨으나 좋다는 시간을 맞춰서 낳느라고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광물 소재를 외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파는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재복이 있다는데 장래가 어떤 가요?

A 정화(丁火)생일간이 유금(酉金)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받는 길함)을 갖고 있어 귀격(貴格)입니다. 사주구조를 설명하자면 화국(火局:불의기운으로 무리를 이룸)에 불을 일으키는 나무가 주위에 있어 매우 화 기운이 태왕 합니다. 병약(病藥)이론으로 수기(水氣)가 귀하의 수호신이며 필요한 오행이 됩니다. 대운에서 재물을 취하고 있으므로 재물이 들오는데 토생금(土生金:토가 쇠를 생해줌)하여 재물의 기운을 도와줍니다. 45세 때인 기해(己亥)대운에서도 용신의 기운이 득왕(得旺)하고 있으니 업무를 열심 하십시오.미래의 애기이나 55세 이후는 운이 쇠하는 시기가 되므로 부동산이나 야산을 사서 과실 수를 심도록 하세요.

알바하며 공무원시험 준비중 포기 말고 도전하면 실현가능

복바치 남자 84년 3월 6일 오후2시

Q 2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31세의 남자입니다. 3월 6일생으로 시간제 알바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무작정 공부만 하기도 지칩니다. 끝까지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A 기토(己土)생일이 사주에 목국(木局:나무의 기운)을 이루고 해수(亥水)관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귀하를 도와주고 있으니 문서운이 있습니다. 재성(財성)이 관성(官星:관직을 나타냄)을 생해주고 있으며 대운의 흐름이 관운이 강왕(康旺)하게 가고 있으므로 공무원 시험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문서 운과 함께 관운이 들어오는 2015년에는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 지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좀 늦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우유부단함이 있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음토(陰土)로 인품에 고지식한 면이 있어 대화 없이 홀로 독행 하여 중도하차 하면 오히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3일 (음 5월 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자녀 덕 보려는 생각 버려라. **60년생** 생각도 못한 이득이 생긴다. **72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조심~. **84년생** 부모 충고에 귀 기울여라.

소 **49년생** 생각도 못한 용돈이 생긴다. **61년생** 술자리가 길면 실수로 이어진다. **73년생** 능력 밖의 일엔 눈길도 주지 말라. **85년생** 산이 높아도 일단 올라가 보라.

호랑이 **50년생** 민감한 일은 침묵이 상책~. **62년생** 안팎에 좋은 일이 잇따른다. **74년생**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써라. **86년생** 너무 신중하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토끼 **51년생** 욕심 부리면 마음만 공허해진다. **63년생** 문서일은 서두르지 말라. **75년생** 부부가 화합하니 일도 잘 풀린다. **87년생** 생각이 간절하면 움직여 보라.

용 **52년생** 웃기는 벗 때문에 유쾌하구나. **64년생** 돌을 주고 금을 얻는 격이다. **76년생**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언행 조심할 것. **88년생** 공들인 사랑은 열매 맺는다.

뱀 **53년생** 성질내면 체면만 깎인다. **65년생** 나들이 할 땐 안전사고 조심~. **77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마음의 벽은 허물어진다. **89년생** 상사의 격려에 답답한 가슴은 뻥~.

말 **42년생** 공사구별은 분명히 하라. **54년생** 고단한 일상에 변화가 생긴다. **66년생** 일이 버그우면 일단 휴식을 취하라. **78년생** 반가운 벗이 찾아와 회포를 푼다.

양 **43년생** 둥글게 생각하면 고민 사라진다. **55년생** 골절로 인한 부상 조심~. **67년생** 자녀가 뜻밖의 희소식 전한다. **79년생** 나에게 적합하지 않는 일은 거절할 것.

원숭이 **44년생** 아무리 좋은 일도 무리는 금물~. **56년생** 컨설팅 너무 믿으면 낭패 본다. **68년생** 남을 도울 땐 티 나지 않게 하라. **80년생** 논리가 부족한 사람이 을러대는 법이다.

닭 **45년생** 온가족이 모여 웃음파티 한다. **57년생** 기회 왔을 때 낡은 이미지 쇄신하라. **69년생** 비전 없는 일로 고민하지 말라. **81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개 **46년생** 자녀 실수는 바로잡아 주라. **58년생** 걱정한 일은 극적으로 반전된다. **70년생** 덕을 두텁게 하여 적도 포용하라. **82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돼지 **47년생** 지나친 건강걱정은 해롭다. **59년생** 배우자 마음 잘 들여다보라. **71년생** 조직의 골칫덩이는 스스로 물러난다. **83년생** 꼼수는 안 통하니 정도로 가라.

홍명보호 조직력 끌어올려라

튀니지전 허점 보완 집중
압박·공수간격·빠른역습


홍명보호 공격수 손흥민이 2일 마이애미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진행된 이틀째 훈련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태극전사들이 조직력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선 발등 부상으로 재활에 집중하는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골키퍼 3명을 뺀 19명의 선수가 홍명보 감독의 불호령 속에 수비 조직력 완성에 힘을 쏟았다.

지난달 28일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통해 공·수에 걸쳐 전체적으로 허점을 드러낸 대표팀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바로 상대팀 압박과 공·수 간격조절, 빠른 역습이다.

홍 감독은 먼저 4명의 공격조와 4명의 수비조를 그라운드에 투입했고, 점차로 선수들의 숫자를 늘려 6대6 훈련에 이어 9대10까지 이어졌다.

홍정호가 재활 훈련 때문에 수비 조직력 훈련에서 빠지면서 한 팀은 마지막 훈련 때 9명으로 치렀다.

전날 볼 없이 그라운드에 콘을 세워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공수 간격을 유지하고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훈련의 연장선이었다. 더불어 공격을 막아낸 뒤 곧바로 수비라인을 끌어올려 좌우 측면을 통한 역습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이어졌다.

두 개조로 나뉜 이날 훈련에서는 사실상 조끼를 입은 조가 주전조 역할을 맡았다.

조끼를 입은 수비조에는 박주영(아스널)이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가운데 지동원(도르트문트)-이청용(볼턴)이 좌우 날개로 나섰고 중앙 미드필더에는 기성용(스완지시티)-한국영(가시와 레이솔), 포백에는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김영권(광저우 헝다)-곽태휘(알 힐랄)-이용(울산)이 배치됐다.

이에 맞서는 공격조는 김신욱(울산)과 구자철(마인츠)이 전방 공격수로 나섰고, 손흥민(레버쿠젠)-이근호(상주) 조합이 좌우 날개를 맡았다. 또 김보경(카디프시티)과 하대성(베이징 궈안)이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되고 박주호(마인츠)-박종우(광저우 부리)-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김창수(가시와 레이솔)가 포백을 맡았다.

홍 감독은 수비 훈련의 막판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방법을 집중 조련하는 등 마이애미 훈련에서 이틀 연속 수비 조직력 완성에 정성을 들였다.

'아메리칸 드림'을 노리고 있는 홍명보호가 마이애미 전지 훈련에서 조직력을 완벽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타고투저 처방은…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타고투저 현상이 심각하다. 9개 구단 전체 타율은 0.288, 전체 방어율은 5.20에 이른다. 경기당 평균득점은 11.3점이다. 1982년 출범 이후 작년까지 평균타율은 0.262, 평균 방어율은 4.03, 평균득점은 8.9점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외국인 타자들이다. LG 조쉬 벨과 SK 루크 스캇을 제외하고 모두 3할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홈런도 펑펑 치고 타점도 많다. 그만큼 능력 있고 몸값이 비싼 효과를 내고 있다. 예전 외국인타자들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는데 그만큼 저렴했다.

더욱 쉽게 풀이하자면 소총 대신 중화기로 대체한 것이다. 단순히 타자 한 명만 좋아진 것은 아니다. 용병타자가 활약하면서 앞뒤 타자뿐만 아니라 타선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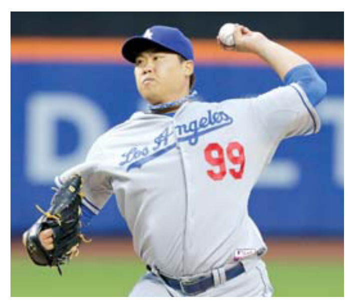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토종 투수들은 허약해졌다. 좌우 에이스로 불리우던 류현진(LA 다저스)과 윤석민(볼티모어 오리올스), 오승환(한신 타이거즈)이 빠졌다. 이들을 이을 토종 에이스들이 KIA 양현종을 제외하고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중간 투수진도 삼성을 제외하면 그다지 튼튼하지 않다.

투수들의 능력이 떨어진 점은 제구력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215경기에서 4사구는 1959개였다. 경기당 9개다. 투구수는 경기당 314개였다. 작년까지 평균 사사구는 8개였고 투구수는 경기당 290개였다. 볼넷과 투구수가 많으면 경기는 재미 없다.

해결책은 없을까? 임시 처방은 있다. 우선 스트라이크존을 투수 친화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인구의 반발력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일본은 작년까지 반발력을 낮춘 공인구를 사용했는데 팀 방어율이 너무 낮아져 논란이 되었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외국인 투수를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있다. 물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토종 에이스의 등장과 진화일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류현진 쿠어스필드 신고식

'투수의 무덤'서 절정 구위 입증 관심



절정의 구위를 자랑하고 있는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투수의 무덤' 쿠어스필드 마운드에 최초로 오른다.

류현진은 7~9일 열리는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3연전에 첫날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40경기를 치르며 총 14개 구장에서 경기를 치렀다. 콜로라도의 홈 구장인 쿠어스필드를 밟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 따르면 쿠어스필드는 해발 1610m에 있으며 타구가 공기 저항을 덜 받아 타구장보다 평균 비거리가 11.2m 더 나온다. 이 같은 유리한 조건 덕에 콜로라도는 올 시즌 팀 타율 1위(0.284)를 기록 중이다. 원정 33경기에서는 0.239(18위)지만 홈 24경기에서는 0.344(1위)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높은 타율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홈 성적도 16승 7패다. 올해 24차례 열린 쿠어스필드 경기에서 68개의 홈런(콜로라도 38개, 원정팀 30개)이 나왔고, 단 한 팀도 0점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보지 못했다.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도 쿠어스필드에서는 역대 전적이 13경기 5승 3패, 평균자책점 5.24로 고전했다.

1995년 개장한 이한 쿠어스필드에서 완봉승을 거둔 투수는 두고두고 회자된다. 일본인 투수 노모 히데오는 다저스 소속으로 1996년 9월 18일 이 곳에서 노히트노런을 달성한 바 있다. 김선우는 콜로라도 소속으로 2005년 9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3피안타 무실점 완봉승을 거뒀다.

부상자에서 복귀해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류현진은 쿠어스필드에서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의 기량을 검증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특히 장타를 허용하지 않는 그의 경기 운영 능력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지도 주목된다.

류현진은 평균자책점 3.09로 이 부문 내셔널리그 19위지만, 피장타율은 0.333으로 11위다. 홈런은 단 2개만 내줘, 규정이닝을 채운 내셔널리그 투수 57명 중 최소 피홈런 1위에 올라 있다. /유순호기자



김자인 한계 넘은 클라이밍

세계 여성 두 번째 이탈리아 자연암벽 완등

세계적인 스포츠클라이밍 스타 김자인(26·사진)이 암벽 등반의 새 역사를 썼다.

2일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김자인은 지난달 20일과 22일 각각 이탈리아 아르코의 바위벽 비비타 비올로지카와 레이니스 바이브스에 올랐다. 이 곳의 암벽 등급은 각각 5.14b와 5.14b/c로 최고 난도로 꼽힌다. 이 두 암벽의 완등자는 여성으로서는 김자인이 세계에서 두 번째다.

암벽 등급은 걸어가는 1급, 기어야 하는 2급, 때로 줄을 사용하는 3급, 주로 줄을 쓰고 추락하면 치명적인 4급, 줄을 사용해야만 하는 5급으로 나뉜다. 5급부터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난도를 세분화한다.

김자인이 도전한 5.14(a~d)급은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암벽에 매겨진다. 전문가들은 '5.14 클라이머'라는 표현으로 이 등급 완등자를 최고의 등반가로 칭송하기도 한다.

김자인은 앞서 지난달 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조비산 바위 봉우리의 운요선경(5.14a급)을 완등해 '5.14 클라이머' 타이틀을 얻었다.

스포츠클라이밍 여자부 세계랭킹 1위인 김자인은 20일 열리는 올 시즌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 리드 1차 월드컵에 출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



driving science
이제는 차선에도
안전벨트를 채우세요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LDWS)이란? –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
모니터나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현대모비스의 첨단기술입니다
HYUNDAI MOBIS
제5회 현대모비스 대학생 광고공모전 대상 수상작 아이디어 입니다